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서영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 연구

지도교수 전영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서영

문서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황선엽 (인)

부위원장 문숙영 (인)

위 원 전영철 (인)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전제 투사 조건을 새롭게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며 전제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건문 분류 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조건문이 표상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성과 가정성을 구분해야 한다. 어떤 명제가 기술하는 사건이 현실 세계에 비추어 참이라는 화자의 강한 믿음이 있을 때는 가정성의 의미가 표상되지 못하지만, 사건이 거짓이라고 믿거나 진리치를 판단하기가 불확실하다는 태도가 존재할 경우에는 비가정성의 의미가 전달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성 및 비가정성의 성격은 두 사건 사이의 인과적인 연결 관계를 드러내는 조건성과 분명히 분별되어야 한다.

3장에서는 본고의 전제 투사 조건을 보이고 이 조건이 조건문들에서 관찰되는 전제 투사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다. 조건문의 전제 투사를 이해하려는 논의는 반드시 명제에 대해 담화 참여자들이 가지는 믿음의 성격을, 달리 말해 '가정성'이 표상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후건의 전제가 투사 문제의 대상이 되면, 가정적인 후건 전제는 투사되지 못하지만 비가정적인 전제는 투사된다. 전건에서 유발된 전제는 전제 자체가 가정적이든 비가정적이든 상관없이 항상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는데, 이는 전건의 전제가 조건의 영향권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조건이 되는 명제는 담화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로 인식되므로 전건 전제는 비가정성을 획득하고, 비가정적인 전제는 투사가 허가된다.

4장에서는 조건문 분류 체계를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들은 전건의 기능에 치중하여 조건문 분류 체계를 제시했고 전제 및 전제와 관련된 언어 현상들을 고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 투사 문제와 관련해서 정돈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정적인 조건문과 비가정적인 조건문을 형식적으로 정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영어의 조건문들을 위주로 하여 조건문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했기 때문에, 전건 내용의 실현성에 대하여 화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건 연결어미와 같은 언어 표지들로 명시화하는 한국어 같은 언어의 특징이 배제되었다. 따라서 조건문에 대한 후속 연구들에서는 조건과 매우 밀접한 전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문 분류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뒤 앞으로 남은 연구 과제를 밝히며 논의를 갈무리한다.

주요어 : 전제, 전제 투사 문제, 한국어 조건문, 가정성, 조건문 분류 체계, 조건문 유형.
학 번 : 2021-27440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 1
1.2. 선행 연구 ····· 3
1.3. 논의의 구성 ····· 7

2. 기본적 논의 ····· 8
2.1. 전제 ····· 8
2.2. 전제 투사 문제 ····· 15
2.3. 조건문 ····· 22

3.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 문제 ····· 40
3.1.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 양상 ····· 40
3.2.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 조건 ····· 49

4. 한국어 조건문의 분류 체계 ····· 70
4.1. 전제와 조건문 분류 체계 ····· 70
4.2. 조건문 분류 체계에 대한 제언 ····· 76

5. 결론 ····· 92

참고문헌 ····· 96
Abstract ····· 103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한국어 조건문에서 관찰되는 전제 투사(presupposition projection)의 양상을 설명할 때 화자의 믿음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조건문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접속의 영역(domain)이 있는데, 조건문의 전제 투사 조건을 정리하였던 Karrtunen(1973)의 논의에서는 접속 영역의 문제를 적절하게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전제 투사 조건을 제안한다. 나아가 조건과 매우 밀접한 개념인 전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건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논의가 긴요함을 보인다.

전제 투사 문제는 내포절의 전제가 모절의 전제로 유지되는 경우와 취소되는 경우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언어 표현의 부분으로 포함된 성분이 어떠한 명제를 전제할 때, 이 명제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전체 문장의 전제로 유지되는 한편 다른 상황에서는 사라지는 모습이 자연언어의 문장들에서 빈번하게 관찰된다. 그리고 언어 사용자들은 복합문 속에서 유발된 전제가 취소되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에 대해 뚜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투사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전제의 성격을 더욱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뿐더러, 함의(entailment)나 함축(implicature) 등 전제와 연관되는 다른 개념들을 새롭게 고찰할 수 있는 시각이 제시될 수 있다.[1)]

---

1) 이소영(1994:23)은 전제의 취소 가능성과 투사 문제가 전제 개념과 관련하여 매우 특징적이며 전제 이외의 다른 개념들과 관계를 맺는 특징들이라 하였다. 따라서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전제와 연관되는 언어 현상이 다른 현상들과 어떠한 측면에서 구분되며, 전제만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이고, 복합문 전체의 전제가 부분 성분들의 전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등에 대해 답할 수 있다.

전제 투사 문제에는 ‘if...then’, ‘either...or’ 같은 문장 연결사(connective)뿐만 아니라 부정(negation) 표현이나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 부류들이 개입하고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필 한국어 조건문과 관련되는 것은 영어의 ‘if...then’ 구성인데, Karttunen(1973)은 ‘if...then’을 ‘여과기(filter)’[2]라는 부류에 속하는 연결사라 규정하였다. 전제 투사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Karttunen(1973)은 ‘전제 투사를 허용할 가능성’에 따라 술어 및 연결사들을 세 부류로 구분했으며, 그중 하나인 여과기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전제 투사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제를 취소시키는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다. 여과기로 분류된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전제가 투사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조건을 명료화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우며, Karttunen(1973)에서 조건문에 나타나는 두 명제들의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는 환경을 ‘조건문의 전제 투사 조건’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기는 했으나 이 전제 투사 조건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예가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조건문에서 전제 투사가 일어나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을 비교하여, 전제의 투사를 저지하거나 허용하는 요인을 밝히려 한다. 한국어 조건문의 구체적인 예들을 살피고 전제 투사를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제 투사 조건을 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제의 의미를 해석할 때 ‘화자의 믿음’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조건문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에도 조건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제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 기존 조건문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방향을 제시한다. 본고의 탐구를 통해 한국어 조건문에서의 전제 투사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이 용어는 Karttunen(1973)의 술어 ‘filter’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여과기를 비롯하여 전제 투사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부류에 대해서는 2.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1.2. 선행 연구

한국어의 조건문에 포함된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는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논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렵다. '전제 투사 문제'라는 주제 자체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조건문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서도 의견의 합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조건문이 내포한 전제들 사이의 관계를 살필 여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을 중점적으로 언급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나,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제안을 덧붙인 논의들이나, 한국어의 특정한 문법 요소가 전제하는 의미를 규정한 뒤 이 전제가 특정한 조건에서 투사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김창익(2003)은 복문의 여러 종류 중 이접문(disjunction)에서 나타나는 전제 투사를 역동적 의미론(dynamic semantics)의 관점에서 살핀 논의이다. 갱신함수(update function)와 Heim(1983, 1992)에서 제안된 맥락 변화 잠재력(context change potential, CCP)[3]을 활용하여 전제 투사 문제뿐만 아니라 전제가 보이는 조응적인 현상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는데, 이는 Chierchia(1995)의 조응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4]를 Heim(1983)의 이론과 함께 고려함으로써 가능했다. 김창익(2003)은 한국어의 문장을 다루지 않았으나 전제 투사를 설명하고자 한 기존

3) Heim(1992:185)는 맥락을 '가능세계들의 집합'으로 보고, 각 문장은 맥락 변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문장이 발화될수록 해당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갱신되어 맥락이 새롭게 변화해 나간다고 보았다.

4) Chierchia(1995)은 담화표상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의 관점에서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이 조응적인(anaphoric)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떠한 전제가 조응될 수 있는 표현을 찾지 못한 경우, 조응 표현을 수용함으로써 문장의 적절한 해석을 도출하는 맥락 보수(repair) 전략이 적용되며 이것이 바로 전제 투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제가 적절히 해석되어 유지되는 것은 조응적인 결속(binding)의 결과로 본다.

연구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지적하고, 이접문에서 전제 투사가 이루어지는 환경과 그 이유를 역동적 의미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김창익(2007)에서는 전제의 국부적 수용(local accommodation)보다 전국적 수용(global accommodation)[5]이 더 일반적이고 선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Heim(1983)과 Beaver(1993)에 반대하여, 국부적 수용이 결코 선호되지 않는 특별한 현상이 아님을 논증한 연구이다. 전국적 수용과 국부적 수용이 일어나는 상황을 각각 검토하여 전국적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부적 수용이 일어나는 예들을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제의 국부적 수용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창익(2007)의 논의는 영어의 부정문과 조건문, 이접문 등의 복문들을 중심으로 전제의 수용 양상을 살핀 것이므로 이 역시 한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논의들에서 주장되었던 바와 사뭇 다른 시각을 견지하며 국부적 수용과 전국적 수용 모두가 전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연구로 이해된다.

이향란(2004)은 전제 투사 문제를 설명하는 만족 이론(satisfaction theory)과 결속 이론(binding theory)[6]이 각각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제 투사를 이야기할 때 통사적 요소보다는 정보의 흐름에 주목해야 하며 전제가 어느 맥락에서 수용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에, 전제 투사 문제에서 화용론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 논의이다.

---

5) Heim(1983)은 전제가 수용되는 방법을 전국적 수용과 국부적 수용 두 가지로 나누었다. 전국적 수용은 c로 표상되는 맥락을 명제 p의 내용이 포함된 'c+p'로 수정하고 이 맥락을 발화의 초기 맥락처럼 여기는 것이며, 국부적 수용은 c+p로 수정된 맥락이 전체 맥락이 되지 않고 이어지는 부분 표현에 대한 즉각적인 맥락이 되도록 하는 수용 방식이다.

6) 결속 이론과 만족 이론에서 전제 투사 문제를 설명한 방식에 대해서는 2.2절에서 설명한다.

김진웅(2014)은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더-'를 전제 유발 표현(presupposition triggers)으로 파악하는데, '-더-'가 증거성에서 비롯한 의미, 즉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의미가 전제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논의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절이 '-더-'의 전제 투사를 막는 요소이며, 양보나 조건의 연결어미는 '-더-'의 전제 의미를 투사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여과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더-'의 전제 의미가 특정한 조건에서 취소되는 양상을 van der Sandt(1992)의 '덫놓기 현상(trapping)'[7]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김진웅(2014)은 선어말어미 '-더-'의 전제 의미가 특정 환경에서 투사되지 못하고 취소되는 이유를 역동적 의미론의 관점에서 설명했으며, 특히 조건 연결어미 '-면'을 '-더-'와의 결합과 관련하여 고려했기에 본고의 연구 대상인 조건문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룬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한국어의 특정한 문법 요소가 보이는 전제 투사 양상을 살폈다. 그러나 한국어의 문장 구성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복문의 부분 표현들이 유발하는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언제, 그리고 왜 투사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아직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의 여러 문장 형식 중에서도 조건문이라 명명될 수 있는 구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조건문의 전제 투사 문제를 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려 한다.

---

7) 덫놓기 현상은 전제 해석의 수용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을 말한다. van der Sandt(1992)는 전제가 조응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결속 이론을 주창하며 담화표상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DRS)의 해석을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속'과 '조정'을 들었다. 조정 과정이 이루어질 때 발화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담화 지시체도 최종적인 해석에서 선행사를 얻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제시되었으며, 이 원리가 덫놓기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김진웅 2014:231). 본고에서는 van der Sandt(1992)의 논의를 결속 이론이라 부르기로 하며, 이 이론의 성격에 대해서는 2.2절과 3.2절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조건문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특히 한국어에서 조건문이라 부를 수 있는 문장 구성이 어떠한 형식을 취하며 그 의미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그간 수행되었던 한국어 조건문 연구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 조건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면'으로 대표되는 조건 연결어미들이 반드시 두 절을 연결하는 자리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미적으로는 조건문의 종속절인 전건(antecedent, apodosis) 사태가 후건(consequent, protasis) 사태의 발생을 위한 '원인'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하고, 양보나 인과의 의미와 구분되는 조건의 의미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박승윤(1988)은 두 개의 사건이나 사태가 있고 이들 중 어느 한 사건이 다른 것의 조건이 되는 문장을 조건문이라 부른다고 정의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조건이 되는 사건은 형식적 측면에서 '-면, -거든, -야'와 같은 연결어미에 의해 표시되며, 의미적 측면에서는 사실로서 주어진(given) 세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표현되는 사건의 사실성 여부는 조건문 형성에 관여하는 연결어미들의 종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윤지원(2004)에서는 논리학에서 정의한 '조건'의 개념[8]을 한층 확장하여 '조건절 사건의 실현 여부가 주절 사건의 실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문장'(윤지원 2004:3-4)을 광의의 조건문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면, -야, -도'만을 한국어의 조건 표지로 한정하고, 조건 표지의 종류에 따라 조건문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조건 연결어미로 만들어진 조건문이라 하더라도 표현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기에 조건문이 전달할 수 있는 의미의 영역이

8) 논리학에서 정의한 '조건'은 실질 함의(material implication)의 개념과 동일하다. 조건문의 전건이 후건을 실질적으로 함의한다는 것은 곧 전건이 참일 때 후건도 반드시 참이 되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이다. 논리적인 조건의 개념과 자연언어에서 사용되는 조건의 개념에 대해서는 2.3절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문들을 유형화한다고 할 때 그 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조건문이 표상하는 고유한 의미에 대해서는 2.3절에서, 조건문의 유형을 분류하여 체계를 수립한 논의의 결과는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제', '전제 투사 문제', 그리고 '조건문'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밝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3장은 한국어 조건문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기존의 전제 투사 조건이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를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전제 투사라는 언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환경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전제 투사 조건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조건문 분류 체계들이 전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되었으나 조건과 전제가 매우 연관되는 개념들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조건문의 유형을 접속 영역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은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루는 데에 한계를 가지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고의 요지를 요약하고 미진한 점을 밝히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2. 기본적 논의

이 장에서는 전제, 전제 투사 문제, 조건문에 대해 그간 논의되었던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전제는 의미론적 측면과 화용론적 측면 중 어디에서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제시될 수 있다. 맥락을 배제하는 진리조건적 설명 방식은 전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다루는 데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담화 참여자들의 믿음 체계를 고려하는 전제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2.2절에서는 전제 투사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연구들을 살피고, 2.3절은 조건문이 표상하는 의미 특성으로 논의된 '조건성(conditionality)'과 '가정성(hypotheticality)'의 성격을 구분한다.

2.1. 전제

전제는 의미론과 화용론 중 어느 한쪽에 속한 용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전제에 대한 정연한 정의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전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 또한 다층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전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전제를 의미론적인 전제와 화용론적인 전제로 양분한 뒤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주제와 더 연관된 전제 개념을 택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는 전제를 의미론과 화용론 중 어느 관점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전제 유발 표현, 전제의 수용 또는 취소, 전제 투사 문제 등 전제와 관련된 주제들이 다르게 설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9)]

9) 다만 의미론과 화용론은 언어 표현의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라는 점은 공통

의미론적 전제는 진리조건적(truth-functional) 의미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어 어떤 문장이 진리치를 가지기 위해 선행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명제로 이해된다. Frege(1892)에서 처음으로 전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했는데, 이 논의에서는 지시 표현(referring expression)과 관련하여 고유명사 같은 한정 표현(definite expression)이 문장 안에서 단언된다면(asserted) 그 고유 명사는 지시(reference)[10]를 가진다는 전제가 항상 존재한다[11]고 하였다. 즉 전제는 단언되는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진리치를 가지기 위해 선행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명제이다. 그리고 부정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점(constancy under negation)이 의미론적 전제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된다.

(1) 가. The king of France is wise.
나. The king of France is not wise.

(1나)는 (1가)에서 단언되는 명제를 부정의 환경에 놓이도록 한 문장이며, 'the king of France'라는 한정 명사구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두 문장이 공통된다. 따라서 두 문장 모두에서 'the king of France'라는 표현

되며 각각이 담당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화용론이 의미론에 비하여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에 의존하는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라는 정의(Huang 2014:2)를 받아들여서 언어 표현에 발화 맥락이 관여하는 현상을 화용론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의미론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미론과 화용론은 연관되어 서로에 대해 보완적인 이론적 통찰을 주고받는 연구 분야이지, 결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부정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0) 이때의 '지시'란 언어 표현의 의미를 실제 세계와의 대응에서 찾는 지시의미론의 '지시' 개념을 말한다.

11) If anything is asserted there is always an obvious presupposition that the simple or compound proper names used have a reference. (Frege 1892. Levinson 1983:169에서 재인용)

이 지시하는 실제 세계의 지시체가 존재함이 전제된다. 이는 기존 문장의 진리치를 반대로 만드는 부정의 힘이 전체 문장에 작용해도 전제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Frege(1892)는 전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해당 전제를 포함한 문장은 진리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1)의 문장들에서 전제되는 프랑스 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Frege(1892)는 (1)의 문장 전체의 진리치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장 A가 있고 B가 어떠한 명제라고 할 때, 의미론적 전제는 Levinson(1983)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를 참고하여 정의할 수 있다.

(2) 의미론적 전제의 정의

가. A가 참인 모든 상황에서, B가 참이다.

나. A가 거짓인 모든 상황에서, B가 참이다. (Levinson 1983:175)

(2)의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만 문장 A가 B를 의미론적으로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Levinson(1983:175)에서 지적되었듯,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이항의 진리치만을 가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요건을 상정하면 의미론적 전제는 항상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제의 진리치를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을뿐더러 전제 자체가 없다고 여겨지는 문장들도 있다는 점이 의미론적 전제의 한계로 지적된다.

(3) 가. 내가 또 지각하면 너한테 만 원 낼게.

나. 프랑스 왕에 대해 생각해 보자.

(3가)는 '또'라는 반복 표현으로 인해 '과거 어느 한 시점에 화자가 지각을 한 적이 있다'라는 전제가 전달된다. 그러나 이 발화를 들은 청자의 기존 지식 체계에 전제 내용과 관련한 정보가 없다면 청자는 해당 전제

내용의 진리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3나)에서는 '프랑스 왕'이라는 한정 명사구가 나타나 프랑스 왕의 존재가 전제되리라고 예상되지만 (3나)에서는 그러한 전제가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전제가 항상 모든 언어 표현에 내재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제는 특정한 언어 표현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며, 화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담화 참여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결정된다. 즉 전제는 언어 표현에 언제나 포함된 명제가 아니며 적절한 맥락 속에서 표현이 사용될 때 비로소 생성된 다음 청자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모든 언어 표현이 전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정 표현, 사실 동사, 상태 변화 동사, 반복 표현, 시간 부사절, 분열문, 비교 표현과 같은 '전제 유발 표현'들만이 전제를 성립시킨다.

결국 언어 표현의 의미를 해석할 때 맥락을 배제하는 의미론의 방식으로는 전제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론적 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용론의 관점에서 전제 개념을 이해하는 '화용론적 전제'가 제안되었다. 화용론적 전제에서는 발화의 맥락과 화청자의 지식 또는 믿음이 전제를 판별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Sellars(1954:203)에서는 문장을 발화할 때 화자가 진실로(truly) 믿고 있는 명제를 전제라 하였고, Stalnaker(1973, 1974, 1978), Levinson(1983)에서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알려진 공통의 명제가 전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Keenan(1971)은 맥락 속에서 발화하는 문장이 적절한 발화로 이해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의 명제를 전제로 규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arttunen and Peters(1975:268)에서는 '문장 A가 B를 화용론적으로 전제하는데, 이는 공통 배경 C에 B가 이미 포함된 상태에서 C를 확장하기 위해 A를 발화하는 것이 적절할 때만 그러하다'[12]라고 하여 화용론적 전제가 발화의 적절성(felicity)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논

12) Sentence A pragmatically presupposes B iff it is felicitous to utter A in order to increment a common ground C only in case B is already entailed by C. (Karttunen and Peters 1975:268. Stalnaker 2002:712에서 재인용)

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담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식 또는 믿음 체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화자의 의도대로 문장이 청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명제가 무엇인지를 중시하여 전제를 정의한 시도로 이해된다.

특히 Stalnaker(1974, 1978)에서는 '담화상의 공통 배경(common ground)'을 전제와 동일시하였다. '공통 배경'이란 대화 참여자들이 공통적, 그리고 상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믿음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화자가 Q라는 명제를 믿고 있고, 그의 청자도 Q를 믿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정을 청자가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 맥락 속에서만 Q가 화자의 화용론적 전제가 된다(Stalnaker 1974:137)[13].

Stalnaker(1974)의 화용론적 전제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화자가 전제하고 있는 명제가 청자의 지식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공통 배경에 전제가 들어 있지 않을 때는 화자의 발화가 부적절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런데 공통 배경에 속하지 않은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발화되었는데도 청자가 그 문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전제를 새로운 지식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수용(accommodation)'의 전략을 택하여 발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Lewis(1979)는 '수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t라는 시간에, 적절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전제 P를 요구하는 무언가가 말해졌고 P가 t의 바로 직전에 전제되지 않았다면, 전제 P는 t에서 생겨난다. (Levis 1979)[14]

---

13) A proposition P is a pragmatic presupposition of a speaker in a given context just in case the speaker assumes or believes that P, assumes or believes that his addressee assumes or believes that P, assumes or believes that his addressee recognizes that he is making assumptions, or has these beliefs. (Stalnaker 1974:137)

14) If at time t something is said that requires presupposition P to be

즉 화용론적 전제를 필요로 하는 발화가 실현될 때 발화 시점 이전에 해당 전제가 공통 배경에 없었다면 발화가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에 청자가 전제를 수용하여 공통 배경을 갱신한다. 이렇게 갱신된 공통 배경으로 인해 발화의 전제가 화청자 모두에게 공유된 상태가 되었으므로 비로소 청자는 발화를 적절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된다.

Stalnaker(2002:711)에서도 본래의 공통 배경에 속하지 않았던 명제를 상대방이 담화에 도입하면 청자는 즉각적으로 해당 명제를 자신의 공통 배경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15] 또 Thomason(1973)은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명제의 내용을 몰랐지만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되는 사회적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되며, 그때 수용이 사용되어 전제가 담화 참여자들의 공통 배경에 추가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전제가 수용되는 현상은 담화의 원활한 진행과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하나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주된 연구 대상인 전제 투사 문제는 복문에 포함된 부분 표현들의 전제가 전체 문장의 관점에서 취소되는지의 여부와 긴밀하게 관련되므로, 화용론적 전제의 '취소가능성(cancellability)'도 중요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전제의 취소가능성이란 전제 유발 표현에 의해 전제가 생긴 이후 어떠한 맥락적 요소의 개입으로 전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16] 전제가 실현되었다가 취소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Horn(1985)

---

acceptable, and if P is not presupposed just before t, then - ceteris paribus and within certain limits - presupposition P comes into existence at t. (Lewis 1979. von Fintel 2000:12에서 재인용)

15) The phenomenon of accommodation, in general, is the process by which something becomes common ground in virtue of one party recognizing that the other takes it to be common ground. (Stalnaker 2002:711)

16) 전제가 유발되기 전에 모종의 기제로 인해 유발되지 못하는 경우인 '전제 유보(suspend)'와 전제 취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어 표현들은 항상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적 환경이 적절하게 주어졌을 때 전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전제가 유발되기 전에 어떠한

에서 언급되었던 ‘상위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의 환경이다. 일반적인 부정이 명제의 주된 단언을 부정하는 것에 비해, 상위언어적 부정은 선행 발화의 요소, 즉 단어의 발음이나 함축, 전제 등을 직접 부정한다.[17] 따라서 전제되는 명제가 이미 실현되어 화청자의 공통 배경에 존재하는 상태가 성립한 이후에 상위언어적 부정이 작용하여 해당 전제를 취소할 수 있다.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발화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화용론적 전제는 취소되기 쉽지만, 맥락의 개입을 의미 해석에 반영하지 않고 전제와 진리치가 직접 연동되는 것으로 보는 의미론적 전제는 취소될 수 없다. 그러나 일상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발화 맥락에서 어떠한 믿음 또는 지식이 담화 참여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에 따라 새로운 전제를 수용하거나 기존의 전제를 취소하는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제 투사 문제는 특정한 언어 표현에 의해 유발된 전제가 맥락의 영향을 받아 취소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전제가 특정한 환경에서는 계속 존재하는 반면 다른 환경에서는 취소되는 상황은 언어 요소의 진리치만을 살펴서는 온전히 파악되기 어렵고, 발화를 둘러싼 맥락과 담화 참여자들의 고유한 믿음 체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대할 수 있을

방해 요소가 개입하여 전제가 유발되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 요소는 전제의 실현을 유보한 것이다. 이는 전제가 잠재 전제(potential presupposition) 형태로 존재하고 다른 요소들과 모순되지 않을 때 실제 전제(actual presupposition)로 실현된다고 했던 Gazdar(1979)나, 전제 유발 표현들이 ‘전제 구조(presuppositional structure)’를 가지고 이것이 실제 상황과 일치할 때 실제 전제로 실현된다고 보았던 Lambrecht(1996:65)의 입장과 상통한다(황현동 2020:16).

17) 상위언어적 부정의 예로 ‘The king of France isn’t wise: there is no king of France!’를 들 수 있다. 이 문장의 선행절을 발화하는 시점에는 ’king of France’의 존재가 전제되어 화청자의 공통 배경에 포함되지만 바로 이어지는 후행절에서 이 존재 전제가 부정되어 전제가 공통 배경에서 삭제된다.

것이다.

다만 화청자의 공유된 지식 또는 배경이라는 정의가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가리키게 된다는 점이 화용론적 전제의 한계로 지적된다. 담화 참여자들이 수용을 통해 새로운 명제를 전제로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공통 배경을 갱신할 수 있던 것처럼, 전제 유발 표현을 통해 유발된 전제를 청자가 항상 알고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므로 전제의 범위를 너무 크게 규정하면 전제의 특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전제 유발 표현이라는 언어적 수단으로부터 유발된 전제로 논의 대상을 한정하여, 언어 형식을 통해 전제로 일컬을 만한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복합문에 내포된 절에 전제 유발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적절한 맥락에서 전제가 유발될 때 해당 전제 내용이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는지를 살피는 접근법은 본고에서 논의하는 전제가 지나치게 개인의 직관에 의존하여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2. 전제 투사 문제

전제 투사 문제란 내포절의 전제가 모절 전체의 전제로 유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취소되는 경우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Morgan(1969)과 Langendoen and Savin(1971)에서 처음으로 전제 투사 문제가 언급되었으며 Karttunen(1973)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 이후로 부분 표현의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정연하게 설명할 방법을 찾기 위한 여러 연구(Heim 1992, Zeevat 1992, van der Sandt 1992 등)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어떤 복합 표현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 표현의 의미와, 부분

표현들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합성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에 따르면 내포절의 전제는 그것이 포함된 모절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포절의 전제들이 해석되는 과정에 어떠한 작용이 이루어져 전제가 전체 문장의 해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문장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5) 가. 영희는 저 아이가 철수의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나. 철수는 동생이 있다.

(5나)는 (5가)의 내포절 '저 아이가 철수의 동생이다'가 전제한 명제이다. '철수의 동생'이라는 한정 명사구는 지시하는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5나)가 전제로 성립한다. 그러나 (5나)는 (5가)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막혀서(blocked) 취소되는데, 이는 '생각하다'라는 명제 태도 동사(verbs of propositional attitude)[18]가 모절의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내포절의 전제인 (5나)는 모절의 명제 태도 동사로 인해 차단되어서, (5가)의 청자는 (5나)가 참과 거짓 중 어떠한 진리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명제 태도 동사가 아니라 '알다, 모르다'와 같은 사실 동사(factive verbs)가 모절의 서술어라면 내포절의 전제는 모절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6) 가. 나는 영희가 또 지각한 줄 몰랐어.
나. 민수는 영희가 또 지각한 줄 몰랐어.
다.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영희가 지각한 적이 있다.

(6가, 나)의 내포절은 '영희가 또 지각했다'로 공통되며, 이 내포절은

18) 명제 태도 동사에는 ''믿다, 의심하다, 상상하다, 원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포함된다.

전제 유발 표현 중 하나인 반복 표현 '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6가, 나)의 내포절은 모두 (6다)를 전제로 삼는다. 그러나 전체 문장의 관점에서 보면, 주어가 일인칭인 (6가)는 내포절의 전제 (6다)를 전제하지 않지만 삼인칭 주어가 실현된 (6나)에서는 여전히 영희가 과거에 지각한 적이 있다는 명제가 전달된다. '너는 영희가 또 지각한 지 몰랐어'라 하여 주어를 이인칭으로 바꾸어도 전제 (6다)가 유지된다. 결국 사실 동사가 모절의 서술어인 문장에서는 주어는 일인칭이 아닐 때만 내포절의 전제가 모절로 투사되어 주어의 인칭에 따라 내포절의 전제 투사 여부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내포절의 전제가 전체 문장에서 계속 투사되는지 또는 취소되는지의 여부는 서술어의 종류나 주어의 인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부분 표현의 의미가 전체 표현의 의미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합성성의 원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보여주며, 전제와 관련하여 복잡한 양상이 발생하는 환경과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언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감하도록 한다.

Karttunen(1973)의 논의 이전에 전제 투사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시도로 Langendoen and Savin(1971)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이론은 '축적 가설(cumulative hypothesis)'이라 불리는데, 복문을 구성하는 부분의 전제들이 전체 문장과 연관된 전제 집합에 누적되어 최종적인 전제 집합이 도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9][20] 이 가설은 내포절

---

19) Langendoen and Savin proposed a simple solution for the projection problem. In their view, the presuppositions of a complex sentence can be defined as the logical sum of the presuppositions of its constituent sentences plus those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main clause itself. (Karttunen 1973:172)

20) Beaver & Geurts(2013:2437-2438)에서는 축적 가설이 부분 표현의 전제들을 전체 문장으로 일관되게 투사시킨다는 점에서 'Weak Kleene' 연결사(Kleene 1952)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Weak Kleene 연결사의 정의를 따르면, Weak Kleene의 어떤 논항이 고전적인 참 또는 거짓의 진리치를 가지지 않을 경우 그 연결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전체는 진리치를 가지지 못한다.

의 전제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항상 전체 문장으로 투사된다고 보았기에 앞서 내포절의 전제가 취소되는 실제의 언어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Karttunen(1973)은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마개(plugs)', '구멍(holes)', 그리고 '여과기'라는 세 종류의 보절 술어들(complementizable predicates)[21]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하였다.

(7) 세 종류의 보절 술어들(Karttunen 1973:174)
가. 마개 : 보절의 모든 전제들을 막는(block off) 술어들
나. 구멍 : 보절의 모든 전제들이 모절의 전제가 되도록 하는 술어들
다. 여과기 : 특정한 조건에서 보절의 몇몇 전제들을 취소하는 술어들

마개는 부분 표현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 문장의 전제로 남지 못하게 막는 술어들의 부류이다. '말하기 동사(verbs of saying)' 또는 '수행동사(performatives)'라 불리는 'say, mention, tell, ask, warn, request, order, accuse, criticize, blame' 등이 대표적인 마개로 이야기된다. Karttunen(1973:175)에서는 보통의(run-of-the mill) 보절 술어들이 마개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즉 구멍과 여과기에 해당하는 보절 술어들을 제외한 나머지 술어들이 마개 부류로 포괄된다.[22] 구멍은 마개와는 반대로 내포절의 전제가 전체 문장의 전제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투사를

21) 본고에서는 Karttunen(1973)에서 이야기했던 'complementizable predicates'이라는 술어를 '보절 술어'라 번역하기로 한다. 이후 자세히 살피지만, Karttunen(1973)에서 보절 술어라 이름 붙인 표현들은 보절을 논항(argument)으로 취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본고의 주요 논의 대상인 영어의 논리적 연결사(logical connectives) 'if...then'도 두 개의 보절이 연결사를 매개로 이어질 것을 요구한다.

22) 다만 마개는 새어나갈(leak) 가능성이 있다. 마개가 내포절의 전제를 항상 취소시키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일례로 말하기 동사들은 'that' 절을 보절로 취할 때 마개로 기능하지만, 간접의문절(indirect questions)이 보절 위치에 올 때는 전제를 투사시킨다.

허용하는 술어들로, 사실 동사와 부정 표현이 마개에 해당한다.

마지막 부류인 여과기는 마개와 구멍의 특성을 모두 가져서 특정한 조건에서는 부분 표현의 전제가 전체 표현에서도 유지될 것을 허용하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제를 취소시킨다. Karttunen(1973:176)은 여과기에 'if...then'과 'either...or' 같은 논리적 연결사만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중 'if...then'은 영어의 조건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한국어의 '만약...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23)]

Karttunen(1973:177-179)은 영어 조건문에서 전제 투사가 일어나는 복잡한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8) 가. If all of Jack's children are bald, then baldness is heredity.
나. If baldness is heredity, then all of Jack's children are bald.
다. If Jack has children, then all of Jack's children are bald.

(8가)의 전건과 (8나, 다)의 후건에는 모두 'Jack's children'이라는 한정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기에 Jack에게 자녀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유발된다. 그런데 (8가)와 (8나)에서는 전체 문장의 관점에서도 'Jack's children'의 존재 전제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나, (8다)의 후건에서 유발된 전제는 취소되어 청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8)에서와 같이 조건문이라는 문장의 유형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제가 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률적이지 않은 실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Kattunen(1973:178)은 영어의 조건문이 전제 투사를 허용하는 특수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9) 'If A then B'라는 형식의 문장을 S라고 하자.
가. A가 C를 전제하면, S는 C를 전제한다.

23) 조건문의 구체적인 정의와 형식은 2.3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나. B가 C를 전제하면, A가 C를 의미적으로(실질적으로)[24]
함의하지 않을 경우에 S는 C를 전제한다.[25]

위와 같이 영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 조건이 설정된다고 간주하고 (8)의 문장들을 설명해보도록 하자. 우선 (8가)는 전건에서 Jack의 자녀가 전제되므로 (9가)에 의해 전체 문장으로 투사된다. (8나)와 (8다)에서는 후건의 전제가 문제시되는데, 전자는 투사가 허용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전건과 후건의 실질 함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 것이 바로 (9나)이다. (8나)의 전건에서 기술되는 내용은 후건의 전제와 어떠한 논리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러나 (8다)의 전건에서 'Jack has children'이라는 명제가 단언되고, 이 명제는 후건의 전제를 함의한다. 따라서 전제 투사 조건 (9나)에 의거하여 (8다)의 후건이 가지고 있던 전제는 투사되지 못하는 반면 (8나)에서는 전건과 후건 사이에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투사되었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결국 (8)의 문장들은 조건문의 전제 투사 조건으로 Karttunen(1973)이 제시했던 (9)가 전제 투사의 실상을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Karttunen(1973)의 '조건문의 전제 투사 조건'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문장들이 발견된다.[26] 더하여, Gazdar(1979)에서는 Karttunen(1973)이 전제 투사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부류들을 세 가지로 나누고 각 부류에 속하는 표현들을 나열한 데 그쳤다고 비판했

---

24) Karttunen(1973:178)에서는 'semantically entai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의미론적 함의는 이후 2.3절에서 다룰 '실질 함의'와 동일한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용어의 통일을 위해 실질적으로 함의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5) Let S stand for any sentence of the form "If A then B".

(a) If A presupposes C (A ≫ C), then S presupposes C (S ≫ C).

(b) If B presupposes C (B ≫ C), then S presupposes C (S ≫ C) unless A semantically entails C (A ⊩ C). (Karttunen 1973:178)

26)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이 전제 투사의 여부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문장들에 대해서는 3.1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다. 각 부류에 속한다고 기술된 표현들이 왜 그러한 부류에 속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같은 부류에 속한 표현들이 공유하는 특성이 무엇이기에 동일한 부류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전제 투사 문제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 체계들이 고안되었다. 그 중 하나로 Heim(1983, 1992)의 만족 이론을 들 수 있다. 만족 이론에서는, 진술(statement)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를 c라는 맥락에 추가하여 맥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c가 진술의 전제를 선행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때 맥락이 전제를 만족한다는 말은 곧 맥락이 진술의 전제를 함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만족 이론은 전제가 국소 맥락(local context)[27]에서 만족된다는 최소의 조건을 준수하는 상황에서만 전제가 투사된다는 규칙을 제시한다.

van der Sandt(1992)로 대표되는 결속 이론(binding theory)도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 논의는 담화표상이론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확장하여 전제 투사 문제에 접근했다. 결속 이론의 기본적인 구상은 전제를 주어진 정보(given information)로 파악하여 전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문장들에 전제가 선행한다는 것이다(Beaver & Geurts 2013:2442). 담화에서 청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적 표상 중에는 접근 가능한 담화 지시체들과 연결되는 것을 선호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전제가 도입하며, 나아가 전제는 조응사(anaphor)와 유사하게 선행사(antecedent)와 결속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van der Sandt(1992)는 '결속'이라는 술어를, 화자의 개념에 대응하는 담화표상구조에 있는 선행사가 전제와 연결되는 모습에 대해 사용하였다. 만약 담화표상구조에 적절한 선행사가 없으면 조정 과정을 거쳐 적절한 선행사

27) 국소 맥락이란 전국 맥락(global context)에 새로운 정보를 갱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맥락 집합(context set)을 말한다. 전국 맥락은 발화 초기에 수립되어 화·청자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는 맥락이며, 국소 맥락은 담화가 진행되면서 생긴 정보들을 전국 맥락에 추가하여 갱신한 맥락이다. (Schlenker 2010:377)

가 담화표상구조의 최상위 층위(top level)부터 새롭게 수용되고, 이후에 전제가 그 선행사와 결속한다.

본고는 한국어 조건문에서 전제 투사가 일어나는 양상을 살펴 기술하는 과정에서 전제 투사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제 투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데 van der Sandt(1992)의 결속 이론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으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2.3. 조건문

'조건문'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조건'의 의미를 표상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조건'이 가질 수 있는 의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조건의 의미를 보이는 성질을 '조건성(條件性)'이라 칭하기로 한다.

조건문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대체로 논리학과 철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논리학적 관점에서의 '조건'은 연결사 '→'로 표시된다. 따라서 p, q라는 기호가 명제를 표시한다고 할 때, 조건문은 'p → q'라 형식화할 수 있다. 앞서 영어 조건문이 연결사 'If...then...'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명제 기호를 이용하면 'If p, then q'로 영어 조건문의 형식을 다시 제시할 수 있다. 이 논리식은 한국어의 조건문 '만약 p면, q'와 대응한다. '만약'은 한국어 조건문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p면 q'를 한국어의 기본적인 조건문 구성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영어의 'then' 역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전건과 후건이 쉼표(,)로 구분될 때가 많으므로 'if p, q'를 영어 조건문의 기본 형식으로 상정할 것이다.

논리적 연결사 '→'로 접속되는 두 명제 사이의 관계는 '실질 함의'로 일컬어진다. 전건에 해당하는 p가 후건 q를 실질적으로 함의한다는 말은

전건이 참인 경우에 후건이 반드시 참이 되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건문이 거짓으로 판단되는 유일한 경우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 될 때뿐이다. 조건 관계를 실질 함의의 관계로 볼 때 명제의 진리치 관계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된다.

[표 1] 실질 함의 관계의 진리조건

p	q	p→q
T	T	T
T	F	F
F	T	T
F	F	T

실질 함의의 관계로 조건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기만 하면 전체 문장의 최종 진리치가 계산된다. 그러나 진리치 기반의 설명(truth-based account)[28]은 Lewis(1973), Stalnaker(1975) 등에 의하여 자연언어에서 실제로 발화되는 모든 조건문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29]

---

28) '조건성'이라는 술어의 의미를 실질 함의가 아니라 가능세계(possible world)의 관점으로 살핀 Lewis(1973, 1976, 1979), Stalnaker(1975)의 논의도 진리치 기반의 설명에 해당한다. Stalnaker(1975)에 의하면 전건이 참이고 다른 요소들은 현실 세계와 조금씩 다른 가능세계들의 집합을 생각한 뒤, 이 집합에 후건이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체 조건문의 참이 보장된다. 즉 'if p, then q'라는 조건문은 전건인 p가 참인 가능세계 속에서 후건 q가 참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진술이라는 것이다(Stalnaker 1975:274-275). 결국 가능세계 개념을 도입하여 조건성을 정의하는 관점 역시 전건과 후건의 진리치를 분별하고, 주어진 조건문이 참이 될 수 있는 진리조건을 정리하려 했다는 점에서 조건성을 실질 함의로 파악하는 시각과 동일한 진리치 기반의 설명 방식이다.

29) 표 1의 세 번째 행, 즉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때에만 전체 조건문은 거짓이 된다는 점이 과연 직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전건이 거짓으로 판별될 때 조건문 전체가 거짓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언어 사용자들의 직관에 더 자연스러운데, 명제들의 진리치만을 계산하는 명제논

조건문을 해석하는 언어 사용자들의 실제적인 판단을 조건문 논의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건문에 포함된 두 내포절 사이에 어떠한 의미적 상관성이 나타나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10)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면, 미국 대통령이 내일 취임할 것이다.

일상 대화에서 위와 같은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데, 이는 (10)의 전건과 후건이 통사적으로 연결될 만한 의미적 상관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을 실질 함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내포된 두 절들의 진리치가 모두 참이기 때문에 전체 조건문의 참이 문제없이 도출된다는 식으로 (10)의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치 기반의 설명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A → B' 형식의 조건문을 사용할 때 A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건이 성립하는 상황을 떠올리고 그 상황 속에서 B의 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30]

실제 담화 맥락에서 사용되는 많은 조건문은 비진리조건적(non-truth conditional) 의미를 전달하여 조건문의 진리치를 참 또는 거짓으로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31] 조건문의 전건에 대해 후건이 가

리(propositional logic) 체계에서는 문장 성분들의 개별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기에 조건문의 참을 과도하게 예측(overpredict)하게 된다(Lee 1996:4).

30) Ramsey(1931:247)는 'p→q'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일단 p를 임시적으로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에 추가하고, 이 믿음을 기초로 q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즉 p를 믿음 체계에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q도 믿는 것이 'p→q'로 표상되는 조건문의 인지적 처리 절차라는 것이다.

31) 자연언어의 문장들이 표상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항의 진리치만을 고려하는 체계보다 삼항 이상의 값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Kaufmann(2001:56-57)에서는, 참 또는 거짓 중 하나의 진리치만을 표현하는 다른 유형의 문장들과는 달리 조건문은 '임의의 값(random variables)'을 지시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에서의 '임의의 값'이란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항 사이에 진리치의 연속체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연속체 속에 있는 가능

지는 가능성의 정도가 조건문 전체의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했던 Adams(1975), 전건과 후건 사이에 시간적 관계와 인과적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보았던 Johnson-Laird & Byrne(1986:67-69) 및 Comrie(1986:80-85) 모두 조건문에서 연결되는 두 절의 의미적 상관성이 조건문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임을 논변하는 연구들이다. 그러므로 진리치 기반의 설명 방식이 조건문을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연언어의 조건문이 보이는 실제적 쓰임을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본고는 '조건성'을 '두 사건이 있을 때, 한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의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건 사이의 관계를 표상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32] 한 사건이 성립하는 데 다른 사건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조건성이 실현되는 문장은 두 개의 사건을 형식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두 사건들 중 하나는 다른 사건을 유발하는 원인 역할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건문의 전건에서 아직 현실 세계에 실현되지 않은 가정적인 사태만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이미 실현된 사태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조건성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쟁점이 되어 왔다.

Akatsuka(1985)는 조건문의 특징적인 의미론적 특징을 규정하고 이러한 의미적 기준을 중시하여 조건문의 범위를 한정한 대표적인 논의로, 조건문들은 서상법(IRREALIS)[33]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화자 태도들

한 진리치들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값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 값이다. 진리치의 선택은 전건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기대에 의존한다.

32) 이상태(1988:217)에서는 한 사태의 발생이 다른 사태의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이 두 사건의 관계를 일컬어 '조건 관계'라 하였으며 윤지원(2004)에서도 조건절의 사태 실현 여부가 주절 사건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곧 조건문이 전달하는 주된 의미라 하였다.

33) Akatsuka(1985)에서 'IRREALIS'와 'REALIS'라는 술어를 인식 척도에 속한 개념 영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개념 영역에 해당하는 술어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서상법과 서실법의 일반적인 의미, 즉 문장에서 기술하는 사태의 실현 여부 등을 나타내는 양상(modality)의 체계를 가리킬 때는 소문자

(speaker attitudes)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보았다. Akatsuka(1985)에 따르면, 서실법(REALIS)와 서상법은 주어진 사태의 실현성(reality)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표상하는 개념 영역(conceptual domain)이며 이들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체 형식의 인식 척도(epistemic scale)를 상정할 수 있다.

Akatsuka(1985)는 전건 부분에서 표현된 화자의 태도가 서상법의 개념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만 전체 문장이 조건문으로 분류될 수 있고, 서실법 영역에 속한 화자 태도가 전건에서 드러나는 경우는 조건성의 특징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서실법 영역에 포함되는 화자의 태도는 '긍정적 신념(positive conviction)'으로 사태의 실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화자가 알고 있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서상법 영역의 태도는 '놀라움(surprise)', '불확실성(uncertainty)', '부정적 신념(negative conviction)'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놀라움은 발화 시점까지 화자가 사태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는 데 따르는 감정을, 불확실성은 사태가 실현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태도를, 그리고 부정적 신념은 사태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안다는 태도를 말한다.

Givón(2001)에서도 조건성은 사실로서 실현된 것이 아닌 서상법의 세계만 표상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보았다. Givón(2001)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conditional adverbial clause)이 크게 서상법적 조건절(irrealis conditionals)과 반사실 조건절(counter-fact conditionals)로 나뉜다고 하였다. 서상법적 조건절과 반사실 조건절 모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태를 기술하기 때문에 서상법의 개념 영역에 속하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다.

그러나 조건문의 전건은 서상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서실법적인 의미, 즉 이미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도 표현할 수 있다. 박승윤(1988, 1992, 2003)은 화자가 사실로서 확립되었다고 믿는 서실법적 성격의 사태가 전건에서 기술되는 예들을 제시함으로써 Akatsuka(1985)에 직접적으로 반

로 표시하기로 한다.

박했다. 박승윤(2003)의 입장이 반영된 조건문의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2] 박승윤(2003)의 조건문 분류 체계(박승윤 2003:44)

사실성(factuality) 측면에서의 전건의 지위	조건문의 유형
서상법	가정적(hypothetical) 조건문, 반사실적(counterfactual) 조건문
서실법	직시적(deictic) 조건문, 사실적(factual) 조건문, 시간적(temporal) '-면' 조건문[34]
서상법/서실법 구분이 부적절함	총칭적(generic) 조건문, 공간적 배경(spatial setting) 조건문, 화행(speech act) 조건문

박승윤(2003)이 조건문 분류의 핵심 기준으로 삼은 전건의 '사실성'이란 본고에서 계속 '실현성'으로 서술한 바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술어이다. 전건이 사실성 측면에서 서상법에 포함되는 의미를 표현하는 조건문에는, 전건 사태가 참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화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정적 조건문과 완전히 거짓으로 인식하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포함된다. 이들은 Akatsuka(1985)와 Givón(2001)처럼 조건문이 서상

34) 박승윤(2003)에서는 Akatsuka(1985)와 이창봉(1996)에 반박하기 위하여,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같은 문장의 선행절에서 화자가 100% 확신하는 시간적 배경이 기술될 때도 조건문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이때 시간을 이야기하는 조건절의 '-면'을 '때'로 대체해도 문장의 의미가 바뀌지 않으므로, 박승윤(2003)은 명사 '때'를 사용하여 시간적 배경을 도입하는 한국어의 '-때' 절과 구분하여 "시간적 '-면' 조건절"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박승윤(2003)에서 제시했던 조건문의 분류 체계를 그대로 보이려 하기에 박승윤(2003)의 명명법을 그대로 따랐으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조건문에 대해서만 '-면'이라는 형식을 명칭에서 밝히는 것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앞으로는 '시간적 조건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적 성격의 전건만을 가져야 한다고 본 논의들에서 조건문의 일반적인 부류라고 언급해 온 조건문 유형에 해당한다.

박승윤(2003)은 조건문의 전건들에는 서실법적인 성격의 명제들, 즉 이미 발생하여 참의 진리치가 부여될 수 있는 명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고 역시 실현되지 않은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또는 발생 중이라는 사실이 화자에게 분명하게 인식되는 상황도 충분히 조건문의 전건에서 표현된다고 본다. 박승윤(2003)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직시적 조건문, 사실적 조건문, 그리고 시간적 조건문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11) 직시적 조건문
가. 거기 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나. 이렇게 비가 오면, 집에서 쉬자.
다. 언니이면, 모든 것을 맘대로 해도 되니?

(12) 사실적 조건문
가. 내가 한국 여자와 결혼했으면, 한국말을 좀 해야 되는데.
나. 봄이 되었으면, 결혼해야지.

(13) 시간적 조건문
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나. 개학을 하면[35] 학교에 간다.

(11)은 직시적 조건문에 해당하는 문장들로, 화자가 전건의 사태를 직접 목격하고 있어서 전건이 '참'인 사실로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 충분히 보증된다. Akatsuka(1985)는 직시적 조건문의 전건에서 단언되는 내용이 화자의 개념 세계(conceptual world)에 속하기는 하지만 화자가 방금 새롭게 알게 된 정보(newly-learned information)이기 때문에 아직

35) 박승윤(2003:36)에서는 '개학이 되면, 학교에 간다'라 제시했지만 '개학을 하다'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 판단하여 문장을 수정하였다.

화자의 장기기억 속 지식으로서 확립되지 못하여 서상법적인 화자 태도가 여전히 드러나는 조건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11)의 문장들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이라거나, '이미 여러 번 말했지 않아요?'처럼 전건의 내용을 과거에 전달한 적이 있다는 맥락에서도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으며, (11다)의 화자는 청자가 언니라는 사실을 발화 시점보다 훨씬 이전 시점에서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조건문의 전건들이 서상법적인 화자 태도만을 보여야 한다는 Akatsuka(1985)의 주장이 본고의 논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12)의 문장들도 전건에서 화자가 주관적으로 참이라 확신하고 있는 사건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사실적 조건문들이다. 사실적 조건문은 '전건에 기술된 사실을 고려하면(if we consider the fact that...)' 후건이 당연한 결과로 발생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 역시 전건에 화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건이 기술된다는 점에서 가정적 조건문 또는 반사실적 조건문과 구별된다.

박승윤(2003:34)은 사실적 조건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면'을 'if'로 대체하기보다는 'since'나 'when'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영어의 'since'는 대체로 연결되는 두 절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할 때 자주 사용되는 접속사인데, 두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면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이 결과 사건이 발생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수반된다. 어떠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화자가 충분히 강하게 믿지 않으면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인과성은 참임이 확신되는 사건이 문장의 선행절에서 기술될 것을 요구한다. 결국 한국어의 사실적 조건문에 사용된 '-면'이 영어의 'since'와 잘 대응하는 모습은, 사실적 조건문의 전건이 참으로 실현된 사태만을 기술할 수 있다는 언어적 사실과 연결되어 한국어 조건문이 서실법 영역의 화자 태도를 표현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게끔 한다.[36]

---

36) 사실적 조건문의 '-면'이 영어에서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ince'로 잘 대치된다는 점으로부터 사실적 조건문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인과 관계를 표현하

전건에서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13)의 조건문들 역시 화자가 전건 사태의 실현성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거나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봄이 오다'와 '개학을 하다'라는 명제는 모두 후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기술하며 이 배경은 화자의 기존 지식 체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봄이 온다는 것과 같은 자연의 법칙이 조건문의 전건 자리에서 기술된다는 사실은 서상법 영역에 포함되는 화자 태도만이 조건문의 전건에 대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더욱 수용하기 어렵게 한다.

박승윤(2003:35-37)은 총칭적 조건문과 공간적 배경 조건문이라 명명된 조건문들에 대해서는 서실법과 서상법 중 어떠한 화자 태도가 드러나는지 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문장들이 단지 조건 연결사 '→'의 논리적 속성을 언어적으로 반영하여 두 사태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4) 총칭적 조건문

가. 0도가 되면, 물이 언다.

나. 2 X 3 = 6이면, 6 ÷ 3 = 2이다.

(15) 공간적 배경 조건문

가. 인사동에 가 보면, 골동품이 많다. (Lee 1996:58의 예문을 수정)

나. 동묘에 가면, 옛날 옷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총칭적 조건문과 공간적 배경 조건문은 모두 전건 사태의 실현성에 대하여 화자가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상태라는 해석을 유도하지 않는다. 총칭적 조건문은 관련되는 두 사건 사이에 법칙성(law-like

---

는 '인과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사실적 조건문의 '-면'을 'since'로 대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지, 사실적 조건문의 '-면'을 무조건 'since'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relationship)이 성립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므로 전건의 내용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항상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공간적 배경 조건문은 후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배경을 전건에서 한정하는 문장으로, 전건에는 항상 공간을 나타내는 장소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고 연결어미 '-면'이 동사 '가다'의 어간과 결합한다는 통사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총칭적 조건문과 공간적 배경 조건문 모두 서상법 영역의 화자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박승윤(2003)은 이 문장들이 맥락에 의존적이지 않고 그저 조건 관계의 순수한 의미론적 특징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서상법과 서실법 영역 중 어느 쪽에 속하는 화자 태도가 드러나는 조건문인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행 조건문들(speech act conditionals)이라 불리는 조건문 유형도 박승윤(2003)의 논지를 따르면 화자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은 조건문 유형에 해당한다.

(16) 화행 조건문

가. 솔직히 말하면, 존은 시험에 떨어졌다.

나.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주가가 폭락했어요.

(16)의 전건들이 단언하는 내용인 '솔직히 말하다'와 '혹시 (청자가) 관심이 있다'라는 명제들은 후건에서 이루어지는 화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Iatridou(1990:50)에서도 위와 같은 문장들을 지시하기 위해 '관련성 조건문(relevance conditionals)' 또는 '조건적 화행(conditional speech a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후건의 화행이 적절할 수 있는 상황을 전건이 특정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화행 조건문과 동일한 조건문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된다. 박승윤(2003)에서는, 화행 조건문의 전건은 후건의 화행이 맥락 속에서 적절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기능할 뿐이지 사태의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중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행 조건문을 서상법 및 서실법의 구분 문제와 무관한 조건문으로 구분한다.[37]

여태까지 박승윤(2003)에서 제시한 한국어 조건문의 분류 체계와, 각 조건문 유형의 전건이 수행하는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박승윤(2003)은 Akatsuka(1985)에 전면으로 반대되는 견해를 지지하고, 나아가 조건문이 표현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추정(supposition)'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였다. '추정'이란 전건의 명제가 기술하는 사태가 화자에게 개념적으로 '가능한 사실(possible fact)'로서 인식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조건문의 전건에서 화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건이 표현될 경우, 화자는 해당 사실을 개념적으로 '가능한 사실'이라 간주한 다음 후건의 내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전건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사건들까지 모두 표현

37) 다만 본고는 조건문의 전건에 이미 참으로 확립된 사건들이 표현될 수 있다는 박승윤(2003)의 논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나 총칭적 조건문, 공간적 배경 조건문, 화행 조건문처럼 서상법과 서실법적 영역 모두에 속하지 않는 제3의 부류가 과연 화자의 서실법적인 태도가 표현되는 조건문 부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총칭적 조건문 '0도가 되면, 물이 언다'나, 공간적 배경 조건문 '인사동에 가 보면, 골동품이 많다'가 발화될 때, 화자는 전건에서 단언되는 명제의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 참으로 실현되었다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0도가 된 물이나 인사동이라는 공간의 존재는 화자의 믿음과 지식을 참고할 때 화자에게 당연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양상은 서실법적인 화자 태도가 표현된다고 규정된 직시적 조건문, 사실적 조건문, 그리고 시간적 조건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공간적 배경 조건문과 의미적으로도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적 조건문의 예만 보아도, '봄이 오면 꽃이 핀다'라는 문장의 전건에서 기술되는 사건 '봄이 오다'는 화자의 믿음 체계에서 분명히 참으로 인식되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진리이다. 이에 본고는 직시적 조건문, 사실적 조건문, 시간적 조건문뿐만 아니라 총칭적 조건문, 공간적 배경 조건문, 그리고 화행 조건문까지 모두 전건의 내용이 화자에 의해 참임이 강하게 믿어지는 조건문 부류에 속한다고 간주하나, 본고에서는 조건문의 분류 체계를 정립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으므로 서실법적 층위의 전건과 서상법적 층위의 전건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까지만 강조하고자 한다.

될 수 있으며, 이 중 기존 연구들에서 배제되었던 후자의 경우들에 관심을 가지는 조건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박승윤(2003)의 학문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창봉(1996, 2009)에서는 박승윤(2003)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면'의 본질적인 의미 특성은 Akatsuka(1985)에서 이야기한 IRREALIS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창봉(2009)은 박승윤(2003)이 조건문의 전건이 오로지 서실법적 상황만을 표시한다고 보는 논의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박승윤(2003)은 서상법적 상황이 전건에 나타나는 조건문을 인정하면서 서실법적인 전건도 적극적으로 조건문 연구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한 논의이므로 이창봉(1996, 2009)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창봉(1996, 2009)은 서상법적 의미만이 전건에 허용된다고 보았지만, 이 역시 발생했음이 확실한 사건이 전건 자리에 위치하는 문장들을 보이고 이들을 조건문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담화 맥락 속에서 화자가 조건문을 사용할 때 문장에 화자 태도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전건 명제의 내용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해도 서상법적인 성격의 화자 태도[38]가 표명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건이 참으로 성립한 사건을 기술하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이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전건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p→q'로 접속되는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화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서상법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문장에 반영된 화자의 태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며 조건문이 서상법과 서실법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천착하지 않는다. 본고는 조건문에서 발견되는 전제 투사의 양상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전건 자리

38) 이창봉(2009)에서 말하는 화자의 서상법적인 태도란 'Newly-learned Information, Uncertainty, Counterfactual, Temporal Scene setting, Other scene setting functions, Speech Act Conditional, Generic, Realis Challenge'에 해당한다.

에 실현된 사건이 표현되는 조건문과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 표현되는 조건문을 모두 인정하기 위하여 이 절에서는 조건문이 표상해야 하는 '조건성'의 개념과 구분되는 '가정성'의 특징을 정밀하게 규정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조건문의 전건에는 반드시 화자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태나 거짓이라 믿고 있는 사태만이 기술될 수 있다고 보았던 논의들은 '조건'과 '가정(hypothesis)'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건과 가정의 의미 영역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앞으로의 조건문 논의에 대한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어떠한 절이 p라는 명제를 작용역(scope)으로 두고 있다고 할 때 'p의 실현이 참이라는 화자의 강한 믿음'을 기준으로 '조건'과 '가정'이라는 두 용어의 의미가 구별된다. '가정'은 어떤 사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신되거나 발생의 여부를 화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술어이다. 윤지원(2004)에서는 어떠한 명제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 거짓이라고 화자가 믿고 있는 사태를 표현한다면 해당 명제는 가정성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Comrie(1986:88)는 가정성을 연속체적인 개념으로 보아, 조건절에 의해 지시된 사건이 실현되었을 가능성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건의 실현 가능성과 가정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가정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가정성이 척도적인 개념이라는 Comrie(1986)의 견해를 옹호하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가정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가정성'과 '비가정성'이라는 양극단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달리 '조건'은 가정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떠한 두 개의 사태들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 관계, 앞서 설명한 대로 한 사태가 다른 사태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 정도만 드러나도 해당 문장에 '조건'의 관계가 존재하며 조건성이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p면 q’라는 형식의 문장이 있다고 할 때, p에서 기술되는 사건이 절대로 발생할 수 없거나 실현성을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해당 문장에 가정성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표상된다. 더하여 p의 실현을 임의로 인정하면 q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상관성이 발견되므로 조건성까지 표상된다고 기술할 수 있다. 반대로 p가 이미 실현된 상황을 기술하면 해당 문장에 가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q가 발생하는 데 p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건성이 있는 조건문으로 판별된다.

즉 ‘조건’은 ‘가정’의 의미 영역을 수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집합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가정’이 표상하는 의미가 ‘조건’의 의미 영역 속에 부분집합으로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태가 실제적인 사실로서 확립되지 않았다거나 불확실하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면서 선행절의 실현을 일단 인정해두었을 때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적 연관성을 드러내는 ‘가정’은, 두 사태 사이에 인과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조건’을 함의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가정을 일방적으로 함의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집합의 관계로 설명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조건’의 의미 영역은 ‘가정’의 의미 영역의 상위 집합이 된다. 이는 곧 ‘가정’이 아닌 ‘조건’의 의미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조건의 관계가 나타나는 두 명제는 가정성이 표상되는 관계도 보인다는 식의 설명은 조건과 가정의 차이를 구별한 서술이라고 볼 수 없다.

‘조건’과 ‘가정’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Haiman(1978:581-582)은 Hua어와 영어의 조건문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가정성을 가지지 않는 조건’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 가정성이 있는 조건은 전건의 명제가 사실이라고 화자가 믿지 않음을 의미하며, 가정성이 없는 조건은 ‘주어진 조건(given condition)’이라고도 명명되어 전건의 명제가 실현되었다는 점을 화자가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전건이 실현되지 않은 사태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대부분 ‘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영어의 ‘if 절’에 한정

하여 조건문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Haiman(1978)은 조건과 가정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논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조건’과 ‘가정’을 위와 같이 구분하고 이를 한국어에 적용한 논의로 신현규(2019)를 들 수 있다. 신현규(2019)에서는 한국어 사전들 8종[39]에 제시된 ‘-면’의 정의들을 살피고 Kaufmann(2001)에서 제시되었던 ‘기정성(旣定性, settledness)’[40] 개념에 의거하여 한국어 연결어미 ‘-면’의 의미를 면밀하게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면’의 가장 중심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미를 ‘가정 조건’이라 명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조건’이 ‘-면’의 의미의 상위 범주에 해당하며 ‘조건’이 표상할 수 있는 의미 영역을 세분한 결과로 ‘가정’, ‘예측’, ‘인식’, ‘반사실’ 등을 도출한다. 결국 ‘가정 조건’은 ‘가정’의 의미를 담은 ‘조건’이라는 말이 된다. 신현규(2019)는 연결어미 ‘-면’이라는 개별 어미의 의미를 논하기 위해 ‘가정’과 ‘조건’을 든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건’을 ‘가정’의 상위 개념으로 보았으며 “‘가정’의 의미가 나타나는 ‘조건’의 환경”과 “‘가정’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조건’의 환경”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의로 이해된다.

결국 조건과 가정의 개념은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조건’의 관계가 표현되는 조건문은 ‘가정’이 나타내는 두 명제 간의 특수한 관계를 표상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위적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만 조건절에서 이미 참으로 확립된 또는 진행 중인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를 적절하게 조건문 논의에 포함하

39) 신현규(2019)에서 확인한 8종의 한국어 사전들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 『민중서림 국어대사전』, 『금성판 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그리고 『현대조선말사전』이다.

40) 어떠한 절이 지시하는 사건이 이미 현실화하여 발화 시점에 선행하거나 발화 시점과 동시에 일어날 때, 해당 사건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것이 되어 기정성을 부여받는다(有田 2017:9. 신현규 2019:20에서 재인용).

여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조건성과 가정성의 차이는 언어 형식에도 반영된다. 한국어의 조건 연결어미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무표적인 조건 연결어미 '-면'은 전건 사태의 실현성에 대해 어떠한 제약을 부과하지 않는다. 발생이 확실하지 않은 사태와 결합하든, 실현될 것이 분명한 사태와 결합하든 모두 적절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어)야, -거든, -르진대, -던들'과 같은 다른 조건 연결어미들은 전건 사태의 실현성에 대해 화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어 연결어미를 통해 전건의 가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며, 이 절에서는 가정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한국어의 언어 표지들을 위주로 살핀다.

먼저 부사 '만약, 만일, 혹시, 설마' 등은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발화 시점에 참으로 실현되었을 리가 없는 사태를 수식한다. 그리고 가정성에 대하여 중립적인 연결어미 '-면'에 통시적으로 특정한 언어 요소가 첨가된 뒤 굳어진 형태가 가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 '-다면, -라면, -었으면[41], -더면, -더라면' 같은 연결어미들은 본래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였던 요소들이 '-면'에 선행하여 사용되다가 하나의 연결어미로 문법화한 결과이다.[42] 이러한 연결어미들이 조건문 형성에 관여하면 해당 문장에서 가정성의 의미가 반드시 전달된다.

---

41) 본고에서 가정성을 표시한다고 보고 있는 연결어미 '-었으면'은 통시적으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으면'과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긴 하나, 과거 시점을 지시하는 의미는 탈색(bleach)되고 반사실성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었으면'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가정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었으면'은, 동일한 형식이나 가정성을 드러내지 않고 과거시제를 표현하는 '-었으면'과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었으면'은 '-던들'과 대치할 수 있는 어미이고 결합한 명제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지시한다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가지므로 가정성을 나타내는 언어 표지가 아니다.

42) '-다면'과 '-라면'의 경우 본래 '-다고 하면'과 '-라고 하면'의 형식을 가졌던 것이 문법화한 어미이며 '-다'와 '-라'는 종결어미에 해당한다.

(17) 가. 어제 비가 왔다면 땅이 젖어 있을 거야.
나. 내가 너라면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다. 만약 철수가 불합격했으면 위로 좀 부탁해.
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더면 우산을 챙겼겠지.
마. 그때 내가 사과했더라면 더 좋은 결말을 맞았을까?

(17)의 문장들은 모두 전건의 사태가 아직 사실로서 확립되지 아니한, '가정성이 있는 조건문'이다. 반대로 가정성이 없는 조건문에서는 (17)에 사용된 가정성 표지들이 허가되지 않는다.

(18) 가. *만일 출세는 못할진대, 돈이나 벌어보자.
나. *봄이 온다면 꽃이 핀다.
다. *난 감기 약을 먹을 때였다면 항상 졸리더라고.

(18가)는 전건 명제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화자가 이 문장을 발화하는 맥락을 상정할 때 가정성을 나타내는 문장 부사 '만일'이 쓰이지 못한다. (18나, 다)에서도 선행절 사태가 이미 발생한 것임이 확신되거나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칙에 해당할 경우 '-다면, -었다면'이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조건문의 제약은 한국어가 조건문에 가정성이 반영되었는지를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언어라는 본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러한 표지들의 실현이 다분히 수의적이라는 점이 문제시된다. 다시 말해 '만약, 만일, 혹시, 설마', '-다면, -라면, -었으면, -더면, -더라면'은 가정성이 있는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이 아니다. '-면, -(아/어)야, -거든, -ㄹ진대' 등의 기본적인 조건 연결어미들에 의해서도 가정적인 조건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한국어에서는 '만약, 만일, 혹시, 설마', '-다면, -라면, -었으면, -

더면, -더라면'가 조건문에 형식적으로 부재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해당 조건문에 가정성의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나, 위의 언어 표지들이 조건문에 삽입되는 것이 불허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조건문이 가정성을 표상하지 않아 가정성을 드러내는 표지들이 공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들과, 조건문에 삽입되는 부사들이 가정성의 표상 여부를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조건성과 가정성의 개념이 분별되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후 4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가정적인 조건문 및 비가정적인 조건문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기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영어를 위주로 하였던 기존의 조건문 논의들이 가정성과 조건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 한국어 조건문과 전제 투사 문제

3장은 한국어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에서 유발된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는 환경과, 투사라는 언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전제 투사 조건을 제시한다. 3.1절에서는 Karttunen(1973)에서 제시되었던 조건문의 전제 투사 조건이 한국어 조건문에서 관찰되는 투사의 양상에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Sweetser(1990)의 세 가지 접속 영역에 기반하여 확인한다. 3.2절에서는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를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전제 투사 조건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전제의 투사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사건의 실현성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믿음의 성격, 달리 말해 사건에 표상되는 '가정성'임이 확인될 것이다.

3.1.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 양상

이 절은 조건문에 포함된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한 Karttunen(1973)의 논의가 모든 영역의 조건문에서 나타나는 전제 투사의 양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역'이란 Sweetser(1990)에서 규정한 세 종류의 접속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접속 영역에 해당하는 한국어와 영어의 조건문을 살펴 새로운 전제 투사 조건이 요구된다는 본고의 문제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조건문의 전제가 투사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Karttunen(1973:178)이 정리한 바를 아래에서 다시 제시한다.

(19) ‘If A then B’라는 형식의 문장을 S라고 하자.

가. A가 C를 전제하면, S는 C를 전제한다.

나. B가 C를 전제하면, A가 C를 의미적으로(실질적으로) 함의하지 않을 경우에 S는 C를 전제한다.

(19)의 전제 투사 조건이 영어의 조건문에서 보이는 전제 투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2..2절에서 (8)의 문장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제는 Karttu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의 조건문에 대해, 더 나아가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접속 영역의 조건문에 대해 유효한지 검증하기로 한다.

우선, (8)로 제시한 문장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20)에서는 전제 투사 조건 (19)에 의하여 전제 투사의 여부가 올바르게 가늠된다.

(20) 가. Jack의 모든 아이들이 대머리면, 대머리는 유전이야. (O)

나. 대머리가 유전이면, Jack의 모든 아이들은 대머리야. (O)

다. Jack에게 아이들이 있으면, Jack의 모든 아이들은 대머리야. (X)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예문들을 제시할 때 문장의 가장 오른쪽에 관찰의 대상이 되는 전제의 투사 여부를 알파벳 ‘O, X’로 표시하기로 한다.

(20가)의 전건에는 ‘Jack의 모든 아이들’이라는 한정 명사구가 위치한다. (19가)를 참조하면 전건의 전제는 함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한정 명사구가 유발하는 전제, 즉 ‘Jack에게 아이들이 있다’라는 전제가 항상 전체 문장으로 투사된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20나, 다)는 후건 전제가 투사 문제의 대상이 되는데, ‘대머리가 유전이다’라는 (20나)의 전건 A는 후건의 전제 C에 해당하는 ‘Jack에게 아이들이 있다’를 실질적으로 함의하지 않으므로 C는 취소되지 않고 전체 문

장의 전제로 남는다. 그러나 (20다)에서는, 전건 A인 'Jack에게 아이들이 있다'가 후건의 전제와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며, A가 참일 때 C도 무조건 참이 되므로 A는 C를 실질적으로 함의한다. 이 경우 (19다)는 후건의 전제 C가 전체 문장의 전제로 유지되지 못한다고 예측하며, 실제로 (20다)에서 후건의 전제는 투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전건이 후건의 전제를 함의하지 않을 때만 후건의 전제가 투사될 수 있다는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 (19나)가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도 잘 설명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다소 섣부르다고 생각되는데, 아래 (21)과 같이 전건이 후건의 전제를 함의함에도 전제가 투사되는 문장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21) 가. 지금처럼 12시가 되면, 종이 울려서 학생들은 12시라는 걸 알게 된다. (O)
나. 발화 시점이 12시다.

(21가)의 후건에 사용된 사실 동사 '알다'는 그것이 목적어로 요구하는 '12시라는 것'의 내용이 참임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21가)가 발화되는 시점이 12시에 해당한다는 (21나)가 후건의 전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21가)의 발화 상황에 있는 화자와 청자는 모두 현재가 12시라고 인식하므로 (21나)는 전체 문장으로 투사된 것이다.

(21가)의 전건인 '지금처럼 12시가 되다'는 '발화 시점이 12시다'라는 후건 전제를 함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 (19나)는 전건이 후건의 전제를 실질적으로 함의할 때 후건의 전제가 투사될 수 없다고 한다. (19나)가 포함된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이 범언어적으로 조건문의 전제 투사에 대한 합당한 예측을 도출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1가)처럼 전건이 후건의 전제를 함의하는 모든 문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제 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

기하고 실제의 언어 현실도 그러한 예상과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21가)의 후건에서 유발된 전제는 전건에 의해 함의됨과 동시에 투사되어서,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 (19나)에서 예측하는 바와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다.

(21가)를 영어로 번역한 (22가)에서도 후건의 전제 (22가)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된다.

(22) 가. If it become 12 o'clock like now, the bell rings and the students know that it's 12 o'clock now. (O)
나. It is 12 o'clock now.

'it become 12 o'clock like now'라는 명제가 참일 때 'it is 12 o'clock now'라는 후건의 전제 또한 참이 되므로 (22가)의 전건은 후건의 전제를 실질적으로 함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건의 전제가 전체 문장의 전제로 유지되어 발화 시점이 12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담화 참여자들이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문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이 모든 조건문의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음을 보인다.

그런데 Karttunen(1973)이 추가로 보인 (23), (24)에서는 전제 투사 조건 (19)가 후건 전제의 투사 여부를 적절하게 예측한다.

(23) 가. If Fred has managed to kiss Cecilia, Fred will kiss Cecilia again. (X)
나. Fred has kissed Cecilia.
(24) 가. If Harry is married, then his wife is no longer living with him. (X)
나. Harry has a wife.

(23가)의 후건에는 반복 표현 'again'이 포함되어 (23나)가 전제된다. (24가)에서는 후건에 한정 명사구 'his wife'가 있으므로 'Harry'에게 아내가 있다는 전제 (24나)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 전제들은 모두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지 않는데, Karttunen(1973)은 투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19나)로 설명한다. 즉 전건이 후건의 전제를 실질적으로 함의하기 때문에 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25)와 같은 한국어 조건문과, 이를 영어로 옮긴 (26)에서는 전건이 후건의 전제를 함의하는데도 후건 전제가 투사된다.

(25) 가. 결혼한 철수를 보면, 철수의 아내 분이 참 부러울 정도야. (O)

나. 철수에게 아내가 있다.

(26) 가. If I see Cheol-soo married, I envy his wife. (O)

나. Cheol-soo has a wife.

(25가)와 (26가)의 발화 맥락에 있는 화자와 청자는 '철수의 아내' 또는 'his wife'라 명명될 수 있는 개체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므로 후건의 전제 (25나)와 (26나)는 전체 문장으로 투사된다. 이는 후건의 전제가 전건에 함의될 때 투사되지 못한다고 하였던 Karttunen(1973)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21), (22), (25), (26)과 같은 문장들은 명제 사이의 함의라는 논리적 관계만을 통해 전제 투사의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Karttunen(1973)의 접근법이 조건문의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후건의 전제가 전건에 함의된다는 점을 근거로 투사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장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조건문의 위와 같은 문장들에서 관찰되는 투사의 양상을 해명할 수 있는 전제 투사 조건을 새롭게 제안하려 하며, 이를 위해 Sweetser(1990)의 논의를 참고할 것이다.

Sweetser(1990)에 의하면, 두 개의 절이 접속된 문장은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으로 명명된 세 개의 영역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한국어는 연결어미를 통해 접속이 이루어지는 언어에 해당하며 연결어미에 따라 문장이 기능하는 영역이 달라진다. 따라서 복문에 해당하는 조건문을 살필 때도 조건문 형성에 관여하는 연결어미의 종류와 함께 조건문이 표현하는 접속 영역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본고는 조건문의 유형을 접속 영역의 명칭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내용 영역 조건문', '인식 영역 조건문', 그리고 '화행 영역 조건문'으로 구분한다. Sweetser(1990)의 접속 영역 개념을 고려함으로써 본고의 전제 투사 조건이 조건문에서 관찰되는 전제 투사의 양상을 충분하게 설명한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내용 영역 조건문은 전건에 기술된 사건이나 상태가 후건 사건 또는 상태의 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 문장이다. 앞서 Karttunen(1973)이 제시한 예문들 중 (8)과,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20)이 내용 영역의 접속 관계를 잘 보여준다. 후건 전제의 투사가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 (19나)에 의해 잘 설명되지 못한다는 점이 현재 문제시되고 있으므로 (8다)를 먼저 살피기로 한다. 'If Jack has children, then all of Jack's children are bald'라는 문장은 'Jack has children'이라는 전건의 사건이 참이 될 때 후건 'all of Jack's children are bald'가 무조건 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후건과 전건을 연결하는 논리적 추론 과정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화행에 대한 고려가 개입하지 않는다. 명제의 내용만 보았을 때 전건이 후건에 대한 충분조건의 역할을 하는 문장은 내용 영역의 조건문이라 불릴 수 있다. (8다)를 한국어로 옮긴 (20다) 역시 전건이 후건의 참을 유도하는 충분조건으로 기능하는 내용 영역 조건문이다.

(8다)와 (20다)에서는 모두 후건의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지 않는데,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인 (19나)에서는 함의 관계를 들어 투사가 거부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21)과 (22)에서 보았듯

후건의 전제가 전건에 함의됨에도 투사가 허용되는 문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문장들도 내용 영역 조건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12시가 되면, 종이 울려서 학생들은 12시라는 걸 알게 된다'와, 이를 영어로 번역한 'If it become 12 o'clock like now, the bell rings and the students know that it's 12 o'clock now'는 전건의 참이 후건의 참을 필연적으로 도출하는 충분조건의 관계를 보인다.

결국 내용 영역에 속하는 조건문이라는 특징은 (8다), (20다), (21가), 그리고 (22가)가 공유하고 있는데, 함의 관계를 통해 전제 투사 문제에 접근하는 Karttunen(1973)의 방법은 같은 영역의 조건문 중에서도 (8다)와 (20다) 같은 특정 문장들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명제 사이의 논리적 진리치 관계만 보아도 전제의 투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8다), (20다)와 그렇지 않은 (21가), (22가)를 분별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기존 논의에 포괄되지 않는 조건문들의 전제 투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 영역에 해당하는 조건문은 전건에 표현된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담화 참여자들의 지식이 후건 명제의 진리치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전건이 후건의 충분조건이라는 특징은 내용 영역 조건문과 같지만, 인식 영역 조건문에서는 후건 내용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전건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맥락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Sweetser(1990:121)는 인식 영역 조건문이 '내가 [전건]을 알면, 나는 [후건]이라 결론짓는다'[43]의 형식과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23가), (24가), (25가), (26가)가 인식 영역 조건문에 해당하는 문장들이다. (23가)는 전건 명제인 'Fred has managed to kiss Cecilia'가 표현하는 사건이 'Fred will kiss Cecilia'를 필연적으로 유발하지 않는다. 전건 사건에 대한 화자의 지식이 있어야 후건을 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므로 인식 영역 조건문으로 분류된다. 한국어 조건문인 (25가)도 마찬가

43) "If I know [protasis], then I conclude [apodosis].". (Sweetser 1990:121)

지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철수를 보다'라는 전건의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지식이 필요하다. (25가)의 화자는 이미 결혼한 철수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여야 하며, 전건을 조건으로 취했을 때 '철수의 아내'라 명명되는 실체가 부럽다는 화자의 인식적 판단이 후건에 기술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5가)와 의미는 같으나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옮겼다는 점만 다른 (26가) 역시 인식 영역 조건문에 해당한다.

결국 인식 영역 조건문에서도 (23)와 (24)처럼 전건과 후건 전제 사이에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후건의 전제가 투사되지 못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는 한편, 그러한 접근법을 취하기 어려운 (25), (26) 같은 문장들도 존재한다. 이로부터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이 조건문에서 관찰되는 모든 전제 투사의 모습을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행 영역 조건문은 후건을 통해 수행되는 화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충분조건의 역할을 전건의 명제가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후건의 화행은 Grice(1975)와 Lakoff(1973)에서 다루어진 적절성 조건(appropriateness condition)에 준거해야 적절하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적절성 조건이 화행 영역 조건문의 전건에서 제시된다. 따라서 화행 영역 조건문들은 공통적으로 '[전건]이면, 내가 [후건]의 화행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자'[44]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다. 화행 영역 조건문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27) 가. If I may say so, that's a crazy idea.
나. If I haven't already asked you to do so, please sign the guest book before you go.
다. If it's not rude to ask, what made you decide to leave

44) "If [protasis], then let us consider that I perform this speech act(i.e., the one represented as the apodosis).". (Sweetser 1990: 121)

IBM?

(27)의 문장들은 모두 Sweetser(1990:118)에서 화행 영역 조건문의 일반적인 예라고 제시한 것으로, 전건에 기술된 상태가 충족되어야만 후건의 화행이 이루어지며 적절하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화행 영역 조건문에서도 후건 전제와 전건의 함의 관계가 성립하는가를 가지고 전제 투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문장들이 발견된다.

(28) 가. 오늘 우산을 챙겼으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또 챙겨야 해. (O)
나.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청자가 우산을 챙긴 적이 있다.
(29) 가. 개나리꽃이 핀 것을 보면, 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때 놀러 가자. (O)
나. 봄이 왔다.

(28가)와 (29가)의 후건에서 각각 유발되는 전제 (28나), (29나)는 모두 전체 문장으로 투사된다. (28가)의 후건은 반복 표현 '또'를 포함하여 발화 시점 이전에 청자가 우산을 챙긴 적이 있다는 명제를 전제로 성립시키며, (29가)의 후건에 사용된 명제 태도 동사 '알다'는 해당 동사가 보절로 삼는 절의 내용이 참임을 전제한다.

(28가)와 (29가) 모두 전건이 후건 전제를 함의한다. (28가)는 청자가 오늘 우산을 챙겼다는 전건이 후건의 전제 (28가)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전건→후건'으로 형식화되는 실질 함의의 관계가 성립한다. (29가)에서는 전건에 포함된 '개나리꽃'은 봄에만 피는 꽃이므로, '개나리꽃이 핀 것을 보다'가 참일 때 봄이 왔다는 명제는 참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전건이 후건 전제를 함의하지만 (28나)와 (29나)가 취소되지 않은 채 청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은 화행 영역 조건문의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해서도 Karttunen(1973)의 설명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통찰을 가능케 한

다.

정리하자면, Karttunen(1973)는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에 해당하는 조건문들에 한정하여 조건문의 전제 투사를 설명하였으며 화행 영역 조건문은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내용 영역, 인식 영역과 더불어 화행 영역도 조건문이 표상할 수 있는 접속 영역의 하나이며, 각각의 영역에 대응하는 조건문들에서 후건의 전제가 전건에 함의되어도 투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명백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함의라는 명제 사이의 논리적 관계만 보아서는 모든 영역의 조건문에서 관찰되는 전제 투사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같은 영역에 해당하는 문장들 중 몇몇 특정한 문장들에만 유효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에 본고는 모든 영역의 조건문에 대하여, 전제가 투사되는 환경과 투사를 허가하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전제 투사 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조건문 후건의 전제가 투사될 때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주로 지적하였다. 3.2절에서는 전건의 전제가 투사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여 조건문에 내포된 전제들이 투사되는 조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가정성'이라는 화자의 믿음이 전제 투사 현상에 관여하는 중요한 의미 특성이라는 점이 이야기될 것이다.

3.2. 한국어 조건문의 전제 투사 조건

본고는 Karttunen(1973)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전제 투사 연구가 모든 접속 영역의 조건문에서 관찰되는 전제 투사의 양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러한 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제 투사 조건을 설정하고자 하는 논의이다. 특히 Sweetser(1990)의 접속 영역 개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데, 접속 영역의 종류에 따라 전제 투사가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

으며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은 모든 영역의 조건문에 대한 일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명제가 전달하는 사건의 실현성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믿음의 성격이 전제의 투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이며 본고의 주장이 반영된 전제 투사 조건을 정립하려 한다.

한국어 조건문에서 전건 또는 후건의 전제가 투사되는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담화 참여자들이 존재하는 '맥락' 속에서 조건문이 발화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2.2절에서 상술하였듯 전제 투사 문제는 전제가 맥락의 영향을 받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조건문이 사용되는 상황과 함께 담화 참여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믿음의 체계를 참고할 때 전제 투사 문제에 접근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 더불어 본고가 채택하는 전제 개념은 담화 참여자가 공유하는 '공통 배경'이라 하였으므로 담화 참여자들이 믿고 있는 명제들의 집합에 조건문의 전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전제는 화자 또는 청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시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조건문에서 전제의 투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피기 전에, 본고에서 제안하는 조건문의 전제 투사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0) 'A-면 B' 형식의 조건문 S가 있고, C는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를 가리킨다고 하자.
가. A가 C를 전제하면, S는 C를 전제한다.
나. B가 C를 전제하면, C가 실현되었다는 화자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C가 가정성이 없는 명제인 경우에만 S는 C를 전제한다.

(30가)는 전건의 전제가 언제나 전체 문장으로 투사됨을 말하는 것으로,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 중 (19가)와 동일하다. 그러나 (30나)는 후건의 전제 C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기술한다는 화자의 강한

믿음이 있는 상황으로만 후건 전제의 투사 환경을 한정한다. 이 조건은 전제되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참조한다는 점에서 명제들의 진리치 관계를 중시한 (19나)와 구별된다.

이제 조건문에서 유발된 전제가 투사되는 조건인 (30)이 세 가지 접속 영역의 조건문들에 모두 적절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투사의 동기까지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3.1절에서 후건 전제가 투사되는 환경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문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므로, 각 접속 영역의 조건문에서 후건의 전제가 투사되거나 투사되지 않는 경우를 먼저 살핀다.

(31) 가. 동생이 공부하면 엄마는 동생이 공부하는 것을 알고 칭찬해 주신다. (O)
나. 동생이 공부한다.

(31가)는 내용 영역 조건문으로, '동생이 공부하다'라는 전건은 '엄마는 동생이 공부하는 것을 알고 칭찬해 주신다'로 기술된 후건 사태의 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전건이 후건의 충분조건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화자의 인식적 추론이나 화행에 대한 고려가 추가로 개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두 절의 접속은 내용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1가)의 후건은 사실 동사가 전제 유발 표현이 되어 '알다'의 보절이 참인 상황을 전제한다. 따라서 (31나)가 후건의 전제에 해당하는데, 이 명제는 조건문의 전건이 참일 때 필연적으로 참이 되므로 전건에 함의되는 것이기도 하다.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은 전건이 후건 전제를 함의할 때 후건 전제가 유지되지 않고 취소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31나)는 투사되어서 (31가)의 발화 맥락에 존재하는 담화 참여자들은 '동생이 공부한다'라는 명제에 참의 진리치를 부여한다.

본고는 (31가)의 후건 전제가 가정성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투사된 것이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2.3절에서, 가정성의 의미를 표상하는 명제는 현재 실현되지 않았다고 화자가 믿고 있거나 실현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태도가 반영된 사건을 기술한다고 정리하였다. 반대로 가정성이 없는 비가정적인 명제에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화자의 강한 믿음이 표상된다.

‘동생이 공부한다’라는 후건의 전제는 비가정성의 의미 특징을 가진다. 어떤 명제가 ‘비가정성’을 띤다는 것은 명제에서 표현되는 사태가 이미 발생한, 또는 현재 발생 중인 사태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화자가 확실하게 그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 화자의 능력 또는 주위 환경의 방해 등의 이유로 명제의 진리치를 판별할 때 화자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거나 거짓이라고 믿는 경우 해당 명제는 ‘가정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31가)는 발화 시점에 동생이 공부를 하는 중이며 엄마가 그러한 동생을 칭찬한다는 현재 시제의 원형적인 의미[45]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공부한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을 칭찬하는 엄마의 ‘습관’적인 행동을 진술하는 문장이다. 습관은 현재를 포함한 큰 시역에 걸쳐 여러 번 발생한 행동 또는 상태를 말하므로, (31가)가 기술하는 사건은 발화 시점에만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실현된 일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31가)에서 단언되는 명제뿐만 아니라 후건의 전제 (31나)가 발화시 이전부터 한 번 이상 발생한 습관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이미 실현된 사건이라는 화자의 믿음이 반영된 명제는 비가정성의 의미 특징을 가지며, 비가정적인 명제가 후건 전제에 해당할 때 그것은 취소되지 않고 투사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한편 후건의 전제가 가정적인 성격의 명제일 경우, 그 전제는 투사되지 못한다.

---

45) 현재 시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기준이 되는 시점에 해당 상황이 존재함을 표시’(문숙영 2009:197)하는 것이다.

(32) 가. 어제 날씨가 좋았으면 우리는 소풍을 간 뒤 모두에게 자랑했을 것이다. (X)
나. 우리는 소풍을 갔다.

(32가)의 후건에는 전제 유발 표현인 시간 부사절이 있으므로 (32나)가 후건의 전제가 된다. 그리고 후건에서 기술된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 전건 사건이 필수적으로 실현될 것이 요구되므로 (32가)는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조건문이다.

‘어제 날씨가 좋았다’가 참일 때 ‘우리는 소풍을 갔다’도 참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전건과 후건 전제 사이에는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Karttunen(1973)에서는 전건이 후건 전제를 함의하지 않는 경우 후건 전제가 투사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32가)의 담화 참여자들은 ‘우리는 소풍을 갔다’라는 명제에 대해 참이라는 진리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는 후건 전제가 투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투사의 양상이 관찰된다는 사실은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이 모든 조건문의 전제 투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한다.

본고는 (32가)에서 후건 전제가 투사되지 못하는 이유를 전제의 ‘가정성’에서 찾는다. 즉 (32가)의 화자는 ‘우리는 소풍을 갔다’라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믿지 않으며, 오히려 실현되지 않은 거짓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조건절 ‘어제 날씨가 좋았으면’이 사실과 반대의 일을 기술하는 반사실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3절에서 설명하였듯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을 포함한 연결어미 ‘-었으면’은 그것이 결합하는 전건의 내용이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표현하여 반사실적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었으면’이 결합한 명제 ‘어제 날씨가 좋았다’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거짓의 명제이며, 이 명제를 충분조건으로 삼는 ‘우리는 소풍을 갔다’ 또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가리

키게 되어 '가정성'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 본고의 전제 투사 조건 (30나)는 후건의 전제가 실현되었다는 화자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해당 전제가 비가정적인 성격을 띨 경우에만 투사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32나)처럼 가정적인 명제가 후건의 전제일 때는 투사가 일어나지 못하며 (32가)에서 실제로 후건의 전제가 투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본고가 제안하는 전제 투사 조건 (30)은 내용 영역 조건문의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룰 때, 투사의 여부가 문제시되는 후건 전제가 가정적인 성격의 것인지를 살펴 투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 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성'이라는 의미 특성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고도 과학적인 개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가정성이 명제의 사태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화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거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할 때 찾아지는 의미 특성이라고 하였으나, 사람의 믿음이 가지는 성격은 다분히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가정성이라는 개념은 본고가 주장하는 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Fillmore(1990)에서 '인식 태도(epistemic stance)'라 명명한 개념을 확장하여 수용하고 van der Sandt(1992)에서 정립한 결속 이론의 체계 속에서 '가정성'이 가리키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Fillmore(1990:120)에 의하면, 인식 태도는 조건문의 전건에 기술된 명제의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전건의 내용이 실제 세계와 일치하는 정도에 대한 화자의 의견을 드러낸다. 조건문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성립해야 할 사건의 존재를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표현하는 문장이므로, 조건문의 의미를 연구함에 있어서 조건문에 드러나는 인식 태도가 무엇인지 살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Fillmore(1990:122)에서는 담화 참여자의 인식 태도를 긍정적, 중립적, 그리고 부정적 인식 태도로 삼분한다. 긍정적 인식 태도는 전건에 표현된 명제가 참의 진리치를 가진다고 화자가 인정하는 것이고, 중립적 인

식 태도는 전건 명제의 진리치에 대해 화자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며, 부정적 인식 태도는 전건 명제가 참이 아닌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Fillmore(1990)가 '참이라고 믿는다' 또는 '거짓이라고 믿는다'라고 서술하지 않고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belief)'보다는 '자만심(conceit)'을 언어 사용에 반영하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If she invited them, they'd go'라는 문장에 반영된 화자의 믿음은 'they'로 지칭되는 개체들이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they will not get invited')라는 명제와 대응하지 않고, '그들이 초대받지 못할 것 같다'('they are not likely to get invited')라는 말과 같다(Fillmore 1990:122). 이렇게 화자는 명제의 실현성에 대해 판단하는 바를 의미 해석 과정에 반영한다. '그들이 초대받지 못하는 사건'을 단언되는 명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화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또는 믿고 있는 일들을 기준으로 이해하여 사건의 실현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Fillmore(1990)에서는 화자의 '자만심'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Fillmore(1990)에서는 조건문의 '전건'에 한정하여 전건의 내용이 실제 세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인식 태도라 명명하였으나 본고는 인식 태도라는 용어를 전건뿐만 아니라 전제에도 사용하고자 한다. 조건문이 발화될 때 청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단언된 명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제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전제가 이야기하는 사건의 실현성에 대해서도 화자가 긍정적, 중립적, 또는 부정적 인식 태도를 표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식 태도'의 개념을 확장하여 전건의 명제뿐만 아니라 전제에 대해서도 사용하고자 한다.

가정성 및 비가정성은 세 종류의 인식 태도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표 3] 인식 태도와 가정성의 상관관계

	긍정적 인식 태도	중립적 인식 태도	부정적 인식 태도
가정성	X	O	O
비가정성	O	X	X

화자가 판단하기에 명제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기술할 경우 해당 명제에는 긍정적 인식 태도가 드러나며 동시에 비가정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실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발생했을 리가 없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경우, 다시 말해 중립적 또는 부정적 인식 태도가 명제에 반영될 때 해당 명제는 가정성이 있는 명제로 이해된다. 결국 Fillmore(1990)의 '인식 태도'는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정성'과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면서, 비가정적인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고는 '인식 태도'라는 술어를 전건 명제뿐만 아니라 전제에 나타난 화자의 입장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하기로 하였다. 후건에 제시된 사건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의 역할을 하는 전건의 사건이 현실 세계에 비추어 어떠한 진리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인식 태도의 개념을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된다. 더 나아가 인식 태도를 가정성과 함께 논의에 활용함으로써 전제의 투사 가능성을 가정성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하는 본고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Kamp(1981)와 Kamp & Reyle(1990)의 담화표상이론을 확장하여 전제를 조응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van der Sandt(1992)의 결속 이론도 가정성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담화표상이론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때 통사적 단계, 담화표상구조 단계, 그리고 해석 단계를 상정하며, 이 중 담화표상구조란 담화 참여자들이 언어 표현을 인식한 다음 개념적으로 구성하는 심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이다.

van der Sandt(1992)의 결속 이론에서는 전제를 조응사의 일종이라 보기 때문에 전제와 결속될 만한 선행사를 찾고, 선행사와 전제를 연결함으로써 전제가 '해결(resolution)'되는 일련의 과정이 상정된다. 전제가 해결되어야 전체 문장의 의미가 화자의 의도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타당한 담화표상구조가 구성되지 않아 비문이 된다. 그리고 어떤 담화표상구조에 들어 있는 전제는 그것이 접근 가능한(accessible) 선행사와만 결속할 수 있다.[46]

그런데 전제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적절한 선행사가 부재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제와 연결될 만한 선행사를 담화표상구조에 새롭게 도입하거나,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행사가 포함된 담화표상구조를 접근 가능한 다른 담화표상구조에 합병하는 수용이 이루어져 전제가 해결되고 전체 문장의 의미도 얻을 수 있다. 수용보다 결속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속이 될 수 있을 선행사가 접근 가능한 담화표상구조에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수용의 전략이 채택된다. 결국 복합문에 내포된 전제가 주어진 맥락 속에서 해결되었다는 말은 담화표상구조의 어떠한 층위(level)에 선행사가 수용되어 전제가 결속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van der Sandt 1992:345).

van der Sandt(1992)는 내포절의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는 것은 수용이 일어나는 상황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전제의 투사가 성공할 때는 담화표상구조의 최상위에 있으면서 의미 해석의 중심이 되는 주 담화표상구조(main DRS)에 수용의 기제가 적용된

---

46) 'u, v'는 결속을 요구하는 담화 표지이며 K는 담화표상구조를, A-구조는 담화표상구조들의 집합을 표시하는 기호라 할 때, van der Sandt(1992)는 담화표상구조에서의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을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1) K_j가 어떤 A-구조의 요소이고 v가 $U(K_i)$에서 확립된 담화 표지인 상황에서 $u \in U(K_j)$라 하자. 그러면 v는 K_j가 K_i에 종속될 때 u에 접근 가능하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담화표상구조가 구성될 때만 전제는 선행사에 접근하여 결속할 수 있다.

뒤, 그렇게 수용된 선행사와 전제가 결속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최상위 층위가 아닌 그 아래의 다른 층위들에서 전제가 선행사와 조응적으로 결속할 때는 전제가 해결된 다음 취소된다.

최상위 층위에 있는 주 담화표상구조에서 수용이 발생할 때만 전제가 투사되는 이유는, 전제가 포함된 전제적 담화표상구조(presuppositional DRS)가 주 담화표상구조에 합병하는 수용을 통해 전제 내용 속에 들어 있는 지시체들은 한정적(definite) 해석을 얻기 때문이다. 지시체가 한정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발화 시점 이전부터 해당 지시체가 화자와 청자 모두의 지식 체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이는 곧 비가정적인 해석을 얻게 된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주 담화표상구조에서 전제의 수용이 이루어지면 해당 전제는 한정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됨과 동시에 비가정성의 특징을 띠게 되어 전체 문장으로 투사된다. 반대로 최상위에 있는 주 담화표상구조가 아니라 하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수용이 발생해 전제가 투사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전제가 한정적 해석을 얻지 못하고 비한정적으로 이해되어서 '가정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정성'이라는 술어의 특징은 Fillmore(1990)와 van der Sandt(1992)의 체계로부터 충분한 이론적 설명을 얻을 수 있다. 인식 태도는 명제의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다. 담화표상구조도 언어 사용자들의 심리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문장의 의미 해석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따라서 인식 태도와 담화표상구조의 개념을 참조하여 가정성의 성격을 이야기함으로써 조건문의 전제 투사 문제를 더욱 쉽게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인식 영역 조건문과 화행 영역 조건문에서도 가정성 및 인식 태도를 고려하는 전제 투사 조건 (32)가 후건 전제의 투사 양상을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33) 가. 지우에게 아이들이 있으면, 지우의 아이들은 대머리야. (X)
나. 지우에게 아이들이 있다.

(34) 가. 결혼한 철수를 보면, 철수의 아내 분이 참 부러울 정도야. (O)
나. 철수에게 아내가 있다.

(33가)에서 후건의 전제가 투사되지 않는 것은 전건이 후건의 전제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Karttunen(1973)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제되는 명제의 실현성에 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에 근거하여 (33가)의 후건 전제가 투사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33가)는 후건의 전제 (33나)가 현실 세계에서 참으로 실현되었는지 화자가 잘 모를 때, 또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서 '지우의 아이들'이라 명명할 수 있는 개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믿고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문장이다. 이는 후건의 전제를 함의하는 전건에 가정성을 명시하는 언어 형식을 삽입해도 (33가)가 자연스럽게 발화된다는 점으로부터 뚜렷하게 알 수 있다. 2.3절에서 언급했듯이 문장 부사 '만약, 만일, 혹시, 설마'와 연결어미 '-다면, -라면, -었으면, -더면, -더라면'은 가정성의 의미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어의 고유한 언어 표지이다. '만약 지우에게 아이들이 있다면, 지우의 아이들은 대머리야'처럼 가정성을 드러내는 언어 표지가 추가되어도 (33가)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만약'이나 '-다면'이 나타나서 가정성이 확실하게 표상되는 전건에 실질적으로 함의되는 후건의 전제 역시 가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렇게 가정성이 표상되는 후건 전제가 투사의 대상이 될 때는 (33가)처럼 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34가)의 후건 전제 (34나)는 가정성이 없어서 투사가 허용된다. 다시 말해, '철수의 아내'로 명명되는 개체가 현실 세계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화자의 믿음이 있어야만 (34가)가 적절하게 발화될 수 있다. '철수

에게 아내가 있다'라는 비가정적인 명제라는 점은 (34나)를 함의하는 (34가)의 전건에 가정적인 조건문에만 쓰일 수 있는 표지들을 삽입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명확하게 확인된다. '*결혼한 철수를 봤으면, 철수의 아내 분이 참 부러울 정도야'라거나, '*만약 결혼한 철수를 보면, 철수의 아내 분이 참 부러울 정도야'와 같은 문장은 매우 어색하다. 한국어에서 가정적인 조건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언어 표지들이 (34가)에서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은 (34가)의 전건이 가정성을 가지지 않음을 말한다. 비가정성을 띠는 명제가 후건의 전제에 해당할 경우 본고의 전제 투사 조건 (30나)에서는 그 명제가 투사될 수 있다고 예상하며, 실제로 (34가)에서 후건 전제가 투사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후건의 전제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화행 영역 조건문에서도 본고의 전제 투사 조건이 투사의 모습을 잘 판단하는지 확인하기로 한다.

(35) 가. 집에 가면 철수가 휴학했는지 아냐고 동생한테 물어보자. (X)

나. 철수가 휴학했다.

(36) 가. 오늘 우산을 챙겼으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또 챙겨야 할 것 같아. (O)

나.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우산을 챙긴 적이 있다.

(35가)의 후건에서 기술된 화행이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건 사태의 실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므로 (35가)는 화행 영역 조건문이다. 이 문장에서는 전건이 후건 전제를 함의하지 않아서 Karttunen(1973)의 논의를 따르면 전제가 투사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35가)의 담화 참여자들은 후건 전제 (35나)가 전체 문장으로 유지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화자는 철수가 휴학했다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35가)를 발화한다. 만약 화자가 (35나)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면 '집에 가면 철수가 휴학했다는 것을

아냐고 동생한테 물어보자'와 같이 말할 것이지, '-는지'를 보절자(complementizer)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는지'는 그것이 결합하는 절의 내용에 대해 화자가 막연한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연결어미이므로, 사실 동사 '알다'가 전제 유발 표현으로 기능하여 전제로 성립하게 된 '알다'의 보절에는 화자의 어렴풋한 의문 또는 불신의 태도가 반영된다. 따라서 (35나)는 가정성이 있는 명제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고의 전제 투사 조건 (30나)에서 가정적인 후건 전제는 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5가)에서 (35나)가 투사되지 못하고 취소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36가)의 후건에서 유발된 전제 (36나)는 비가정적이어서 투사가 허용된다. 과거에 우산을 챙긴 사람이 화자와 청자 중 누구인지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누군가가 우산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화자가 확실하게 참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만 (36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우산을 챙겼던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음을 몰랐거나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고 화자가 강하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36가)가 발화될 수 없다.

(36나)가 비가정적인 명제라는 사실 역시 (36나)를 함의하는 (36가)의 전건에 '만약, 만일, 혹시, 설마', '-다면, -라면, -었으면. -더면, -더라면'을 사용하기가 어색하다는 점으로부터 확인된다. '*만일 오늘 우산을 챙겼으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또 챙겨야 할 것 같아' 또는 '*오늘 우산을 챙겼더라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또 챙겨야 할 것 같아'처럼 가정성을 명시적으로 보이는 한국어의 표지는 (36가)의 전건에 포함되기 어렵다. 이렇듯 가정성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성분들이 후건 전제 (36나)를 함의하는 (36가)의 전건에 사용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 (36나)가 가정성이 아닌 비가정성의 성격을 보이는 명제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상과 같이 후건의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는 조건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제에서 기술된 사건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어떠한 성격을 가

지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전건의 전제가 어떠한 환경에서 투사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전건에서 유발된 전제는 Karttunen(1973)에서 정리한 바와 동일하게 항상 모절로 투사된다.

(37) 내용 영역 조건문

가. 철수가 다시 지각하면, 벌점이 부과된다. (O)

나.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철수는 지각한 적이 있다.

(38) 인식 영역 조건문

가. 철수가 다시 지각하면, 벌점을 더 받겠지. (O)

나.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철수는 지각한 적이 있다.

(39) 화행 영역 조건문

가. 철수가 다시 지각하면, 그때는 우리에게 밥을 쏘기로 했어. (O)

나.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철수는 지각한 적이 있다.

위의 문장이 발화되는 맥락에 지각한 학생에게만 벌점을 준다는 학교의 규정이 담화 참여자들의 공통 배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자. (37가), (38가), 그리고 (39가)는 전건이 동일하며, 반복 표현 '다시'가 전제 유발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전건이 전제하는 내용도 같다. 세 문장들의 접속 영역에 따라 조건문의 유형을 구분하면 (37가)는 내용 영역 조건문, (38가)는 인식 영역 조건문이며 (39가)는 화행 영역 조건문에 해당한다.

우선 Karttunen(1973)에서 후건 전제의 투사 가능성이 함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했던 점을 고려하여, 전건 전제의 투사에도 전건 전제와 후건 명제의 진리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로 한다. (38가)의 전건에서 유발된 전제는 후건에 의해 함의되나, (37가)와 (39가)에서는 그러한 함의 관계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 (38가)의 후건 '(철수가) 벌점을 더 받겠지'에는 '더'가 포함되어 있어서 철수가 발화 시점 이

전에 최소 한 번은 지각한 적이 있어서 벌점을 받았다는 함축이 유도된다. 이러한 함축은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47]에 따라 '더'라는 언어 표현에서 고정적으로 도출되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의미는 (38가)의 전건에서 전제로 취하고 있는 (38나)와 동일하므로, (38가)의 후건이 전건의 전제를 함의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37가)와 (39가)는 후건이 전건의 전제를 함의하지 않는 문장들이다. '벌점이 부과된다'와 '그때는 (철수가) 우리에게 밥을 쏘기로 했어'에 참의 진리치를 부여할 때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철수가 지각한 적이 있다'도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건 전제가 후건에 함의되든 그렇지 않든, 전건 전제는 (37가), (38가), (39가) 모두에서 투사된다. 전건 전제의 투사 가능성을 논할 때는 명제들 사이의 함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건 전제의 투사에서와 같이 전건 전제가 가정성과 비가정성 중 어떠한 의미 특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투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인 세 문장들에서 전건의 전제는 투사되었으며, 본고는 전건의 전제가 투사되지 않은 문장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전건의 전제에 있어서는 가정성이 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후건 전제를 다룰 때처럼 사건의 실현성을 판단하는 화자의 역할과 함께 본고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문장들이 조건문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전건 전제의 투사 문제에도 가정성을 중

47) Grice(1975:45-46)에서는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리로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제시하였다. 이 원리는 담화 참여자가 수행하는 발화가 담화의 목적과 방향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만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협력의 원리를 준수하도록 하는 네 가지의 격률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양의 격률은 '현재 대화 교환의 목적을 위하여 너의 기여를 요구되는 만큼 정보적이게 만들어라(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s of the exchange))', '필요 이상으로 너의 기여를 정보적으로 만들지 말아라(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라는 두 개의 격률을 지키는 것이다.

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37가), (38가), (39가)의 전건에서 유발된 전제는 모두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철수는 지각한 적이 있다'로 같을 뿐만 아니라 비가정적인 성격도 공유하고 있다. 전건 전제에서 기술된 사건이 이미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화자의 신념이 있어야 위의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반복 표현 '다시'는 하위 사건인 결과 상태를 복원하거나, 계속 지속하거나, 반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용어[48]이므로, 어떠한 의항을 택하든 '다시'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하위 사건은 이미 이전에 발생했다는 뜻이 전달된다. 따라서 (37가), (38가), (39가)의 전건은 비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철수가 지각한 사건을 화자가 모르는 맥락에서는 발화될 수 없다. 본고는 후건 전제가 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전제가 비가정적일 때 막히지 않고 투사된다고 하였다. 가정성이 전제 투사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전건의 전제도 후건 전제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어서, (37가), (38가), (39가)의 비가정적인 전건 전제들이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었다는 설명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38가)에서는 전건 전제 (38나)를 함의하는 후건에 '혹시, 설마'처럼 명제의 실현 확률을 높지 않게 평가하는 화자의 믿음을 표현하는 형식을 추가할 수 없다. 이로부터 (38나)가 가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설마, 혹시'는 이 부사들이 수식하는 명제의 성립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부정적 또는 중립적인 화자의 인식 태도를 보여주는 언어 표지이다. 이들이 (38가)의 후건에 삽입되면 '*철수가 또 지각하면, 설마 벌점을 더 받겠지', '*철수가 또 지각하면, 혹시 벌점을 더 받겠지'와 같은 부적절한 문장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38가)의 후건과 전건의 전제에는 모두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식 태도가 표상되어 비가정성의

48) 유우흠(2022: 133)에서는 '다시'의 의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 [복원]을 의미하는 '다시'는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삼는다.
(b) [계속]을 의미하는 '다시'는 하위 사건인 과정을 작용역으로 삼는다.
(c)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는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삼는다.

특징을 가진다.

비가정적인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된다는 점은 후건 전제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전건의 전제가 가정적인 성격을 띠는, 달리 말하면 긍정적인 인식 태도를 표명하는 문장에서도 전제의 투사가 허용된다. 이는 앞서 가정적인 후건의 전제가 투사되지 못하고 취소되었던 모습과 대비된다.

(40) 내용 영역 조건문

가. 미연이가 그 회사에 취직한 것이 사실이면, 빨리 축하 파티를 열어야겠어. (O)

나. 미연이가 그 회사에 취직했다.

(41) 인식 영역 조건문

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과학 교과서를 완전히 바꿔야겠지. (O)

나. 해가 서쪽에서 뜬다.

(42) 화행 영역 조건문

가. 집에 맥주가 있는 게 기억나면 맥주는 살 필요가 없겠네. (O)

나. 집에 맥주가 있다.

(40가), (41가), 그리고 (42가)의 전건들에서 각각 분열문 구조, 명제 태도 동사 '알다', 사실 동사 '기억나다'가 전제 유발 표현으로 기능하여 (40나), (41나), (42나)가 전제되며 이들은 모두 가정성을 띤다. 특히 (41나)에서는 전건 전제의 가정성이 두드러지는데, 일반적인 상식과 물리 법칙에 따라 해는 절대 서쪽에서 뜰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정성을 표시하는 형식들을 전건에 무리 없이 삽입할 수 있다는 점도 위 세 문장들의 전건 전제가 가정적임을 증명한다. '설마 미연이가 그 회사에 취직한 것이 사실이면, 빨리 축하 파티를 열어야겠어', '혹시 집에 맥주가 있는 게 기억나면 맥주는 살 필요가 없겠네'처럼 '설마, 혹시'가 전건에 삽

입되면 화자가 전건 내용을 참으로 확신하지 않고 불확실하게 추측하고 있다는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그뿐만 아니라 '미연이가 그 회사에 취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빨리 축하 파티를 열어야겠어', '집에 맥주가 있는게 기억난다면 맥주는 살 필요가 없겠네'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성 측면에서 무표적인 연결어미 '-면' 대신 '-라면, -다면'이 전건과 결합하여 가정적인 의미 특성을 전건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다.

앞서 후건 전제의 투사를 이야기할 때, 가정적인 후건 전제들은 모절의 전제로 유지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40가), (41가), 그리고 (42가)의 의미를 해석하는 청자는 전건의 전제가 취소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데, 이는 전건 전제들은 후건과는 달리 '조건'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투사이다.

어떤 명제를 조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해당 명제의 사건이 임시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한 다음에 이후의 내용을 진술하겠다는 말과 같다. 즉 조건의 영향권에 속하는 명제가 주어진 정보, 달리 말해 구정보(old information)로 기능하도록 하는 작용이 조건문에서 이루어진다.

구정보의 개념은 화제(topic)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화제는 전제와도 유사한 성질을 공유한다. Lambrecht(1996)는 화제 역할을 하는 개체가 담화 참여자들에게 이미 접근 가능한 것으로 인지되는 맥락에 있기 때문에 전제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만 전제는 명제의 형태지만 화제는 개체라고 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였지만, 화제인 개체가 전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화제와 전제 모두를 화자의 믿음 체계에 이미 주어진 정보라고 규정하였다.

Haiman(1978)은 조건 표지와 화제 표지가 동일하다는 관찰을 통해 조건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명제가 곧 화제라는 주장을 개진한 논의이다. 그리고 조건문의 전건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의 일부분을 표현함과 동시에 후행하는 발화를 제한하는 틀을 구성한다[49]는 점에서

49) A conditional clause is (perhaps only hypothetically) a part of the knowledge shared by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As such, it constitutes

화제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Stalnaker(1974:211) 또한 전건에서 명시적으로 추정되는(supposed) 사건은 이후의 담화를 위한 임시적인 공통 가정(common assumptions)의 일부가 된다[50]고 하였다.

따라서 전건의 전제는 담화 참여자들에게 구정보이자 화제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실현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달리 말해 '가정적'이고 부정적 또는 중립적 인식 태도가 반영된 명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건문의 전건 자리에 위치하여 조건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해당 명제는 임의적인 구정보로 처리된다. 그리고 이 명제는 '비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식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이제 (40), (41), (42)로 제시한 세 가지 접속 영역의 조건문들에서 관찰되는 전제 투사를 다시금 이해할 수 있다. 담화 참여자들은 전건의 전제가 현실 세계에 비추어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전제가 조건문의 전건에서 유발되었다는 통사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전건 전제의 사태를 참인 공통 배경으로 간주한다. 전체 조건문의 의미는 전건 전제가 비가정성의 특징을 획득한 다음에 후건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전제의 투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담화 참여자들은 모절인 조건문에서 전제의 내용을 변함없이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전건에서 유발된 전제는 명제 자체가 가정적이든 비가정적이든 조건의 영향권 아래에서 비가정성의 특징을 가지게 되기에 항상 투사

---

the framework which has been selected for the following discourse. (Haiman 1978:583)

50) The analogous generalization about conditional statements is explainable on equally simple assumptions. Here we need first the assumption that what is explicitly supposed becomes (temporarily) a part of the background of common assumptions in subsequent conversation, and second that an if clause is an explicit supposition. Again, Karttunen's generalization is derived from these obvious assumptions. (Stalnaker 1974:211)

되며, 이러한 양상은 모든 접속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앞서 후건 전제의 투사를 설명할 때 명제를 통해 기술되는 사건에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참의 진리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 태도가 반영되면 후건 전제가 투사된다고 했던 설명과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다. 조건문의 전건에 나타나는 전제 자체가 가정적이든 비가정적이든 조건의 영향권 안에서 항상 비가정성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모절로의 투사가 이루어진다고 정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용 영역, 인식 영역, 그리고 화행 영역에 해당하는 조건문들에서 나타나는 전제 투사의 양상을 살피면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전제 투사 조건 (30)이 투사의 결과를 잘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명제에 부여되는 진리치 사이의 관계만을 보아 투사의 여부를 판단하는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이론은 내용 영역 조건문과 인식 영역 조건문만을 예로 들어 전제 투사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전제 투사라는 언어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명하지 못한다. 더불어 모든 접속 영역의 조건문에서 나타나는 전제 투사와, 같은 영역에 속하는 조건문들 중에서도 전제 투사 조건이 잘 적용되는 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다는 이론적 한계를 가진다.

본고는 Karttunen(1973)의 가정성 및 인식 태도가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루는 데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투사의 대상이 되는 전제의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발생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전제의 투사를 허용하는 핵심적인 기제가 된다고 하였다.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은 명제가 표상할 수 있는 여러 의미 특징들 중 '가정성'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가정성이라는 개념의 성격은 Fillmore(1990) 및 van der Sandt(1992)의 이론적 체계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게다가 본고의 전제 투사 조건은 전제 투사라는 언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다. 전제 투사 문제는 문장이 사용되는 맥락의

특정한 성격에 의하여 전제가 취소되거나 유지되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므로, 전제가 투사되는 환경을 정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맥락 속 언어 사용자들이 명제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개 표현이 없고 복문이 아닌 단문에서 전제가 유발되었을 때는 전제의 가정성 또는 비가정성이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판별하지 않아도 청자에게 전제의 내용이 전달된다. 그러나 전제가 조건문 속에 내포되었을 때 취소될 가능성이 생기며, 전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참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화자의 강한 믿음이 부재하는 맥락에서는 전제를 모절의 해석까지 유지할 만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전제가 취소된다. 이렇듯 명제가 기술하는 사건의 실현성에 대하여 화자가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지에 따라 투사의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본고의 전제 투사 조건이 분명하게 포착하고 있으므로, 본고의 논의를 참고하여 전제 투사가 발생하는 이유와 환경을 뚜렷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4. 한국어 조건문의 분류 체계

이 장에서는 조건문의 유형을 분류하여 체계를 수립하고자 할 때 전제의 여러 성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조건문 유형을 나눌 때 Sweetser(1990)의 접속 영역을 주된 기준으로 삼은 조건문 분류 체계가 전제 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연한 설명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전제 투사 연구가 참고할 수 있는 조건문 분류 체계가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야기될 것이다. 접속 영역을 조건문 분류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 조건문을 분류한 기존의 논의들은 영어의 문장들을 위주로 살펴 수립되었기에 한국어 조건문에서 전제 투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를 통해 논증한다.

4.1. 전제와 조건문 분류 체계

조건문의 유형을 구분하고 특정한 기준을 상정하여 분류 체계를 구성하려 한 연구는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들에서 조건문을 분류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고려한 기준은 '전건의 기능'이다. 전건이 의미적, 그리고 통사적 측면에서 보이는 특징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상정하여 조건문의 분류 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건문의 분류는 조건문을 직설법적(indicative conditionals)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subjunctive conditonals)으로 양분하는 방법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가정법적 조건문의 전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현실 세계와의 대응을 찾을 수 없는 사태가 기술되는 문장이기에 반사실적 조

건문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반면 직설법적 조건문의 전건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또는 이미 확실하게 발생한 사태만을 전건에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방식은 '가정법'과 '직설법'이라는 개념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 두 술어는 각각 '서상법'과 '서실법'을 대체하기 위한 문법적인 용어로 채택되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법-접속법', '서상법-서실법'의 쌍 중 하나만 채택하는 편이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임동훈(2008:229)에서는 유럽어에서 '직설법-가정법 체계'라 불리는 체계가 비유럽어의 '서실법-서상법 체계'와 유형론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다소간의 분포 및 통사 기능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개별 문법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직설법과 가정법을 서실법 및 서상법과 구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가정법과 직설법은 정의와 쓰임이 연구마다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용어이며, 결국 조건문을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으로 양분하는 방식은 조건문 유형에 포함된 개념에 대하여 제기되는 여러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건 사태의 사실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조건문의 유형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2.3절에서 박승윤(2003)의 조건문 분류 체계를 제시하며 자세하게 다루었다. 간략히 요약하면, 박승윤(2003)은 실현되었다고 인식되는 사태도 조건문의 전건에 허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실성 측면에서 서상법적 지위와 서실법적 지위 중 어떠한 지위에서 전건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조건문을 구분하였다.

Dancygier(1999)는 일차적으로 조건문을 예측적(predicative) 조건문과 비예측적(non-predicative) 조건문으로 분류하고, 전건이 기술하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하위 유형을 나누어 표 4와 같은 조건문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표 4] Dancygier(1999)의 조건문 분류 체계

전건 사태의 실현성	조건문의 유형	
예측적 조건문	열린(open) 조건문, 가설적(hypothetical) 조건문	
비예측적 조건문	의사소통적(conversational) 조건문	화행적·메타텍스트적 조건문
	맥락에 기반한(contextually grounded) 조건문	배경적·인식적 조건문

Dancygier(1999)의 조건문 분류 체계는 구체적인 술어의 명칭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건 사태의 실현성'을 기준으로 예측적 조건문과 비예측적 조건문의 유형을 양분하기에 박승윤(2003)와 동일한 분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예측적 조건문에 속하는 열린 조건문은 전건 사태가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화자가 잘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가설적 조건문은 반사실적 조건문과 같아서 발생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 전건에 표현된다.

비예측적 조건문은 화자가 발화 맥락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은 잠정적인 내용(assumption)이 전건에 표현되는 조건문이다. 즉 담화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참여자들 중 누군가가 잠재적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전건에 나타난다. Dancygier(1999)는 참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서 완전히 비가정적인 성격의 전건이 'if'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고 보며, 'if'가 사용되는 이유는 화자가 전건의 명제에 대해 가지는 인식적 거리(epistemic distance)를 표현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명제에 대해 화자가 인식적 거리를 표현한다는 말은 곧 해당 명제의 내용이 반드시 참이라고 화자가 믿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비가정적인 성격의 전건을 가졌다고 설명할 수 없으나, 예측적 조건문과는 달리 비예측적 조건문은

Sweetser(1990)의 내용 영역에 속하는 문장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가정적 조건문과 다소 유사하다.

4.2절에서 후술하겠지만 Sweetser(1990)는 내용 영역 조건문의 전건이 항상 가정적인 사태만을 허용하고,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의 조건문은 가정적인 사태와 비가정적인 사태를 모두 전건에 허용한다고 하였다. 즉 Dancygier(1999)의 체계에서 내용 영역 조건문과 대응하는 조건문 유형은 예측적 조건문이며, 예측적 조건문의 전건은 언제나 가정적인 사건을 표현해야 한다. 반면 인식 영역 조건문과 화행 영역 조건문과 연관되는 비예측적 조건문은 가정적이지 않은 사태들도 전건에 허용한다. 비예측적 조건문의 화자는 전건 명제의 실현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주관적인 거리감을 문장에 반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비가정적인 전건이 포함된 조건문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가정적인 조건문 중 중립적인 인식 태도가 드러나는 조건문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화행적·메타텍스트적 조건문은 후건에 제시된 화행에 대한 적절성 조건이 전건에 나타나는 문장이다. 배경적·인식적 조건문은 전건에 표현된 사태에 대해 화자가 맥락으로부터의 추론을 통해 실현 여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하나 해당 명제에 대한 진리치 판단을 연기한다는 태도가 드러나며, 화자가 사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내용을 전건에서 화제화(topicalize)하는 문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Dancygier(1999)의 조건문 분류 체계는 박승윤(2003)에서 전건의 의미를 구분한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건이 수행하는 의미 기능을 근본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은 두 논의의 공통된 특징이다.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으로 조건문의 유형을 양분한 전통적인 연구의 흐름 역시 전건 사태의 실현성을 살펴 조건문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기존의 조건문 분류 체계들은 대부분 전건의 기능에 치중하여 조건문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전제의 특징 및 전제와 관련한 언어 현상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서 소개

한 조건문 분류 체계들은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루는 데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일례로 Dancygier(1999)의 조건문 분류 체계인 표 4가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한다. 3.2절에서 본고는 화자가 투사 대상이 되는 전제의 실현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따라 투사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전건'의 실현성이 아니라 '전제'의 실현성을 화자가 평가한 결과를 살폈을 때, 전제되는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거짓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진리치를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제에 가정성이 있어서 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참으로 믿어지는 경우에는 비가정적인 전제가 투사의 대상이 되므로 투사가 허용된다. Dancygier(1999)는 전제가 아니라 전건의 실현성을 기준으로 조건문의 유형을 나누고 분류 체계를 수립하였으므로 전제의 가정성 여부를 통해 전제 투사 문제를 정연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는 Dancygier(1999) 이외에도 전건의 의미 및 통사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 조건문 분류 체계를 정립하려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전제는 조건과 매우 상통하는 개념이기에 전제를 조건문 논의에 포함하여 다루면 전제와 조건문 모두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전제는 담화 참여자들의 공통 배경, 달리 말해 믿음 체계에 속한 명제이다. 화자는 자신의 고유한 믿음 체계를 바탕으로 전제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기술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조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화자는 조건화된 명제에 임시적으로 참의 진리치를 부여하는 믿음을 가진다. 다시 말해 조건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것이든 발생하지 않은 것이든, 또는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든 상관없이 화자는 조건문의 전건이 자신의 믿음 체계 속에서 참으로 인식되는 정보라고 인정해둔 다음 후건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논하게 된다.

전제 투사 문제에서도 조건과 전제의 개념적 연관성이 드러난다. 본고

는 3장에서 전제 내용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믿음의 성격에 따라 전제 투사의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후건에서 유발된 전제의 경우, 전제가 표현하는 사건에 대해 화자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가정성의 표상 여부가 결정되었다. 가정성에 대한 판단은 화자의 믿음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믿음 체계 속에서 실현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제가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결국 후건 전제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믿음 체계에 속하는 명제이며, 가정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거친 비가정적인 후건 전제만 전체 문장으로 투사될 수 있다.

전제가 조건문의 전건 자리에서 유발될 때, 해당 전제는 조건의 영향권 안에 속하게 되어 전제 명제 자체가 어떠한 내용을 나타내는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정보, 즉 구정보로 인식된다. 앞서 전제가 화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논의인 Haiman(1978)은 Hua어에서 화제를 표시하는 형식과 조건문을 만드는 형식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조건이 되는 명제 또는 개체가 화제, 즉 주어진 정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후건 사태의 발생을 위한 조건의 역할을 하는 전건의 전제는 그 명제 자체의 성격이 가정적인지, 비가정적인지와 관계없이 조건의 영향권 속에서 주어진 정보의 지위를 획득한다. 주어진 정보는 화자와 청자의 공통 배경 속에 존재하는 정보이므로 비가정성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본고는 비가정적인 전제가 투사된다고 하였으므로 전건의 전제는 항상 전체 문장의 전제로 유지된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조건문들을 살펴보면 전건의 전제는 항상 투사된다.

이처럼 ‘전제’와 ‘조건’의 특성이 서로 연관되고 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전제 투사 문제 및 조건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조건과 전제가 상당히 비슷한 의미 특성을 공유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인정됨과 동시에 이러한 사실이 조건문의 분류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전제 투사

가 이루어지는 조건문과 그렇지 않은 조건문의 경우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조건문 분류 체계가 제안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2. 조건문 분류 체계에 대한 제언

4.1절에서 소개한 논의들은 조건문의 전건에 표상될 수 있는 사건의 실현성을 조건문 분류의 중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조건문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접속되는 두 절 사이의 관계를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으로 삼분하고 조건문에서 표현되는 접속의 관계도 각각의 영역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한 Sweetser(1990)의 조건문 분류 체계가 있다. 그리고 이 체계에 기반하여 한국어 조건문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 논의들도 찾아볼 수 있다.

[표 5] Sweetser(1990)의 조건문 분류 체계

절 접속의 영역	조건문의 유형
내용 영역	내용 조건문(content conditionals)
인식 영역	인식 조건문(epistemic conditionals)
화행 영역	화행 조건문(speech-act conditionals)

Sweetser(1990)의 논의에 대해서는 3.1절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만 요약하기로 한다. 다만 3.1절에서는 각 접속 영역에 조건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내용 영역 조건문, 인식 영역 조건문, 화행 영역 조건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Sweetser(1990)는 조건문 유형을 명명할 때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표 5에서는 원문을 존중해 '내용 조건문, 인식 조건문, 화행 조건문'의 용어로 조건문 분류 체계를 나타냈다.

내용 조건문은 조건문의 전건이 후건 사태의 발생을 위한 충분조건에 해당하며, 두 절 사이를 연결하는 데 화자의 인식적 판단이나 화행을 위한 적절성 조건에 대한 숙고가 관여하지 않는다. 인식 조건문은 후건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전건에서 기술되는 조건문이며, 화행 조건문은 후건의 화행이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한 조건이 전건의 내용에 해당하는 조건문이다.

Sweetser(1990)의 논의는 한국어 조건문을 다루는 연구들에도 받아들여졌다. 그중 세 가지 접속 영역을 조건문 분류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은 김수정·최동주(2018)를 참고할 수 있다. 김수정·최동주(2018)는 연결어미 '-면'을 통해 만들어진 한국어의 조건문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조건문은 일차적으로 내용 조건문, 인식 조건문, 화행 조건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부류 속에 박승윤(2003)에서 제시되었던 조건문의 유형들을 포함하는 식으로 조건문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표 6] 김수정, 최동주(2018)의 한국어 조건문 분류 체계

Sweetser(1990)의 접속 영역	조건문의 유형
내용 조건	가정적 조건문, 총칭적 조건문, 공간적 배경 조건문, 시간적 '-면' 조건문
인식 조건	반사실적 조건문, 판단 조건문
화행 조건	직시적 조건문, 화행 조건문

김수정·최동주(2018)는 접속 영역이라는 기준을 추가로 상정하여 박승윤(2003)의 조건문 분류 체계를 수정하고자 한 논의이다. 따라서 본고가 앞서 '사실적 조건문'으로 번역했던 'factual conditionals'를 '판단 조건문'으로 명명했다는 점만 빼면 박승윤(2003)에서 설정했던 조건문 유형의 명칭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박승윤(2003)처럼 사실성 측면에서 전건이 어떠한 지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조건문이 표상하는 접속 영역들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조건문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김수정·최동주(2018)의 조건문 분류 체계에서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인식 영역에 해당하는 조건의 의미를 표상한다고 보는데, 본고는 이러한 처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반사실적 조건문은 전건 자리에 확실하게 거짓인 것으로 화자가 믿고 있는 사태만을 허용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다음 후건 사태와 전건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문장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반사실적 조건문은 인식 영역뿐만 아니라 화행 영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불로불사의 약이 있으면 나는 그 약을 꼭 먹을 거야' 같이 화행 영역에 해당하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발화될 수 있다는 점만 보아도, 반사실적 조건문을 인식 영역 조건문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표 6의 처리가 실제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수정·최동주(2018)은 아래의 문장을 들어 한국어의 반사실적 조건문이 인식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43)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매고 있었으면) 아직 살아 있을 거야.

(43)은 중의적인 문장으로,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다'라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화자가 알고 있는 상황과 사건의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전자의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3)이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이해되어서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으나, 만약 그녀가 안전벨트를 맸다면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을 거야'의 의미가 표현된다. 반면 '잘 모르겠으나 그녀가 안전벨트를 맸다면 지금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의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때는 (43)을 반사실적 조건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건과 후건을 연결하는 데 화자의 의식적 판단이 개입하는 인식 영역의 조건문, 그리고 박승윤(2003)의 분류 체계에서의 가정적 조건문으

로 보아야 한다.

김수정·최동주(2018)는 (43)에서 반사실적 조건문으로의 해석과 인식 영역 조건문으로서의 해석이 한국어에서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반사실적 조건이 인식 조건과 함께 하나의 부류로 묶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43)이 발화되는 맥락이 무엇인지에 따라 두 가지의 해석 중 하나로 최종적인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지, 반사실적 조건과 인식 조건이 같은 유형이라서 (43)의 중의성이 유발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수정·최동주(2018)에서 제시한 조건문 분류 체계는 실제 한국어 조건문의 의미 및 접속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보이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된다.

Sweetser(1990)의 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조건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 김수정·최동주(2018)의 시도는 조건문의 두 절이 연결되면서 표상하게 되는 의미가 어떤 접속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복문의 주된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상에서 제시된 조건문 분류 체계들은 조건문의 전제 투사라는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정연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즉 세 가지 접속 영역 중 문장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해당 문장의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조건문 및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모든 접속 영역의 조건문에서 나타나는 전제 투사의 양상을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들이 가정적인 조건문과 비가정적인 조건문을 형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영어의 조건문에 국한하여 전제 투사 문제에 접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어는 조건문을 만들 때 조건 연결어미 '-면, -(아/어)야, -거든, -르진대, -던들'이 필수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영어는 조건문을 만드는 기제가 한국어와 달라서, 한국어처럼 서술어 부분에 특정한 문법 표지를 첨가하지 않고 조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conjunction) 'if'를 이용한다. Dancygier(1999:1)은 영어의 조건문을 '조건 접속사 *if*가 이끄는 종

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복합문'이라 정의하였으며 Dixon(2012)에서도 'if'를 '조건절 표지(conditional marker)' 및 '절 연결사(clause linker)'라 하였다. 즉 영어는 조건문을 만드는 특별한 접속사를 개별 문법에 포함하고 있는 언어이며, 'if'는 반드시 절과 절 사이에 위치할 필요는 없고 "If you lie, you mother will be mad at you'처럼 주절과 조건절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도 허용된다.

그런데 영어의 조건 접속사 'if'는 한국어와 달리 '가정'과 '조건'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표현할 수 있어서, '가정적인 조건문'과 '비가정적인 조건문'이 형식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44) 가. If it rains, the match will be canceled.
나. If it had rained, the match would have been canceled.
다. If he is so dumb, it's no use talking to him anymore.
라. When did you come home last night, if I may ask?

Dancygier(1999)에 의하면 (44가, 나)는 가정성이 있는 조건문이지만 (44다, 라)는 가정성이 없는 조건문이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위의 문장들에 접속사 'if'가 공통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정성을 기준으로 나뉘는 두 부류의 조건문들을 형식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표지를 찾을 수 없다.

다만 반사실적 조건문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언어보편적으로 '과거시제 형태소'가 이용된다. 한국어에서도 가정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지들에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이 포함된 '-었으면'이 포함된다. '-었으면'은 전건 명제와 결합하여 그 전건의 내용이 현실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은 가정적이고도 반사실적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므로 반사실적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 영어의 반사실적 조건문도 전건의 서술어 부분에 과거시제 형태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반사실성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렇게 시제를 사건시보다 이전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을 'backshift'라 부

르기도 한다. 반대로 반사실성을 보이지 않는 조건문들은 사건시와 일치하는 시제가 전건의 서술어에 의해 표현되어서 반사실적 조건문과 다른 조건문 유형들이 형태적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전건에 과거시제 형태소가 나타나 반사실성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언어 전략은 영어의 경우 반사실적 조건문이 아닌 다른 유형의 조건문들, 즉 전건 사태의 실현성이 불확실하거나 참임이 확실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조건문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과거시제 형태소의 존재 여부를 통해서는 반사실적 조건문과 다른 조건문 유형들을 구분할 수 있을 뿐이며, 총칭적 조건문, 직시적 조건문, 화행 조건문 등 다른 유형의 조건문들 사이의 구별에는 과거시제 형태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한국어는 반사실적 조건문 이외의 다른 조건문 유형들을 영어보다 상대적으로 세밀하게 구분하는 언어이다. 박유경(2015:51)에서는 가정성을 명시하는 언어 표지인 '-다면'과, 가정성에 관하여 중립적인 '-면'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다면'과 '-면'의 분포 차이

조건문의 유형	-면	-다면
가정적 조건문	가능	가능
조응적 조건문	가능	가능
총칭적 조건문	가능	불가능
직시적 조건문	가능	불가능
시간적 조건문	가능	불가능

조응적 조건문에 '-다면'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조응적 조건문의 전건에서 기술되는 선행 발화의 내용에 대해 화자가 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조응적 조건문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선행 발화가 필요하며 이 발화의 내용이나 발화로부터 추론되는 명제를 전건에 표현한다. 화자는 전건의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100%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며 '선행 발화의 내용이 참이라고 일단 임시적으로 인정해두

면, 후건의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를 조응적 조건문이 전달한다. 따라서 조응적 조건문은 가정적인 전건이 포함된 문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조건 연결어미 '-다면'은 가정성의 의미를 형태적으로 보이는 형식이므로 비가정적인 전건이 요구되는 총칭적 조건문, 직시적 조건문, 그리고 시간적 조건문에는 사용될 수 없다. 가정적 조건문과 조응적 조건문처럼 가정적인 전건이 포함되는 문장들에만 '-다면'이 사용되어 해당 문장이 가정성을 띤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다면'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포함한 가정적인 조건문들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여 가정적인 조건문과 비가정적인 조건문의 유형을 형태론적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덧붙여, 영어는 반사실적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시제 형태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나 한국어의 반사실적 조건문은 '-었-'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과거시제 형태소의 실현은 조건문의 가정성을 증가시키는 한국어의 유표적인(marked) 기제(김지영 2021:12)로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가정적인 조건문과 비가정적인 조건문을 양분하는 데 개입하는 한국어의 조건 연결어미들이 정해져 있는 점에 더하여, 한국어의 조건 연결어미 '-면, -(아/어)야, -거든, -ㄹ진대, -던들'은 각각 결합하는 전건이 가정성의 측면에서 가져야 하는 성격을 제한한다.

(45) 가.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놀이공원에 가자.
　　나. 봄이 되면 꽃이 핀다.
(46) 가. 철수가 와야 나도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
　　나. 비가 와야 농사가 될 텐데.
(47) 가. 날씨가 좋거든 소풍을 가거라.
　　나. 집에 가거든 연락을 줘.
(48) 가. 주인이 취할진대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나. 우리가 이웃일진대 서로 도와야 마땅하다.

(49) 가. 친구가 왔던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 조금만 더 건강했던들 이만한 일에 쓰러지지는 않았을 텐데.

‘-면’은 조건 연결어미들 중에서 가장 무표적이고 중립적인 연결어미라서 전건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 태도가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조건문에 사용될 수 있다. (45가)처럼 발생이 확실하지 않은 사태와 결합하든, (45나)처럼 자연법칙에 해당해서 실현될 것이 분명한 사태와 결합하든 모두 적절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아/어)야’는 ‘-면’이 쓰이는 모든 환경에 대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하지 않은 사태뿐만 아니라 ‘형이 울어야 동생도 울었다’, ‘수요일의 이틀 뒤여야 금요일이다’(성선월 2001:15-16)처럼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지당한 자연법칙이 전건에 기술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거든’은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확립된 사건을 전건으로 취할 수 없고 가정적인 사건들만을 허용한다. ‘-ㄹ진대’는 다소 예스러운 표현이지만 전건 사태가 현실에서 성립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사태가 후건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므로 실현성이 참으로 확립된 사태만 전건 위치에 기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던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해 ‘-었으면’의 뜻을 전달하는 연결어미로 정의되는데, ‘-었으면’과 ‘-던들’은 모두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판별되는 사건들만이 전건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처럼 다른 조건 연결어미들은 ‘-면’과 항상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건에서 기술되는 사건이 실현성 및 가정성의 측면에서 가져야 하는 특징을 제한한다.

‘-면, -(아/어)야, -거든, -ㄹ진대, -던들’ 중 어떤 연결어미가 조건문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전건에 기술될 수 있는 사태의 실현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조건 연결어미의 종류에 따라 조건문의 유형도 달라진다는 말과 같다. 예를 들어 ‘-(아/어)야’가 사용된 조건문 (46가, 나)는 전건 사태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정적 조건문이지만 ‘-ㄹ진대’가 있는 (48가,

나)는 현실에서 확실하게 참인 사건만이 전건 자리에 위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실적 조건문으로 구분된다. 조건 연결어미의 종류로 조건문의 세부적인 유형을 알 수 있는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과거시제 형태소를 통해 반사실적 조건문과 그 이외의 조건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어는 다양한 조건 연결어미들을 적절한 문맥에서 사용하여 전건의 내용이 확실하게 발생한 사건인지, 아직 불확실한 사건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지를 형태적으로 분간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형식적 기제들을 이용하여 한국어 조건문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영어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영어는 조건문을 만들 때 조건성과 가정성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는 접속사 'if'를 이용하며, 'if'는 후행하는 절의 진리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함축을 전달하지 않는 중립적인 접속사이다(Morgan 1969:168-169). 반사실적 조건문에서는 과거시제 형태소가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한국어와 비교했을 때 영어는 사태의 실현성을 화자가 평가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구분되지 않는 언어이다.

이러한 영어의 특징은 영어의 조건문에 대하여 전제 투사 문제를 논한 이전의 연구들이 조건과 가정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if'가 조건성과 가정성의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영어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가정성이 있는 조건문과 가정성이 없는 조건문이 영어에서는 형식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은 Haiman(1978), Athanasiadou & Dirven(1997)에서도 지적되었다. 특히 Haiman(1978:581)은 영어에서 'if'가 선행한 절들이 대부분 가정성을 의미 특성으로 가지고 비가정적인 선행절이 있는 문장은 'if'가 아니라 'when'이라는 접속사나 'given that'이라는 숙어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if'가 부재하는 영어의 문장은 조건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가정적인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when'을 이용하는 것이 영어의 일반적인 방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어의 개별적 특징 또한 'if'가 사

용된 조건문들을 살핌으로써 전제 투사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선행 연구들이 가정적인 조건문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51] 그리고 Akatsuka(1985)와 같이 조건문은 언제나 가정적인 사태만을 조건으로 취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발동하게 된 데에는 기존의 조건문 논의들이 영어의 문장들을 위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가정적이지 않은 조건문의 존재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조건문의 전건이 가정적인 경우로만 한정하여 조건문 및 전제 투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이전의 실정과 Sweetser(1990)의 접속 영역 논의는 무관하지 않다. Sweetser(1990)는 접속사 'if'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영어의 조건문들이 내용 영역, 인식 영역, 그리고 화행 영역에서 모두 만들어질 수 있으며, 각 영역의 조건문들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조건성은 세 접속 영역에 표상되는 의미 특성이지만, 자연언어의 조건문이 발화될 때 접속 영역의 종류에 따라 조건성과 가정성이 함께 표상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Sweetser(1990:128)는 영어에서 '주어진 조건문(given conditionals)'이라 불릴 수 있는 문장들은 모두 인식 영역 또는 화행 영역의 조건문들이라고 하였다.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이 아닌 내용 영역 조건문의 전건은 항상, 그리고 무조건 가정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Sweetser(1990:128, 130)에서는 아래의 문장들을 들어 접속 영역에 따라 가정적인 해석의 도출이 허용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

51) 본고는 영어와 한국어라는 두 언어를 위주로 각 언어에서 조건문이 형성되는 방식과 가정성을 밝히는 언어 표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였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논하지 않지만, Haiman(1978:581)은 Hua어처럼 영어가 아닌 몇몇 언어들에서는 가정적인 조건문의 전건에 사용되는 언어 표지와, 비가정적인 조건문의 전건에 사용되는 언어 표지가 표면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영어가 가정적인 전건에 'if'를, 비가정적인 전건에 'when'을 사용하는 언어라면 Hua어와 같은 언어들은 'if'와 'when'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가정적인 전건과 비가정적인 전건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단일한 언어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였다.

(50) Well, if (as you say) he had lasagne for lunch, he won't want spaghetti for dinner.
(51) If he was a bad governor, he'll be a worse president.

(50)은 인식 영역 조건문, (51)은 화행 영역 조건문이다. 우선 (50)의 전건에서 'as you say'가 발화된다고 한다면, 조건화되고 있는 명제 'he had lasagne for lunch'는 선행 발화에서 청자가 이미 발생했다고 이야기한 명제로 이해되므로 전건은 가정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as you say'가 사용된 (50)은 인식 영역에 속할 수 있는 여러 조건문 유형 중에서도 선행 발화를 전건에서 반복하여 조건화하는 조응적 조건문으로 판별된다. 그러나 (50)에서 'as you say'를 빼고 발화하면 더 이상 조건이 되는 명제가 발화 시점 이전에 발화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정성이 있는 내용 영역 조건문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Sweetser(1990)의 분석이다.

또한 Sweetser(1990)는 (51)이 화행 영역 조건문 중에서 전건이 주어진 해석을 얻어 비가정적인 성격을 띠는 문장이라고 본다. 'he was a bad governer'라는 전건 명제가 현실에서 참으로 인정된 후에야 (51)이 적절한 발화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Sweetser(1990)에서 내용 영역을 제외한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의 조건문에서만 비가정적인 성격의 전건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조건문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회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용 영역 조건문은 '현실 세계에서 전건이 후건의 충분조건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할 뿐인데, 여기에서 전건의 명제가 담화 참여자들에게 이미 참으로 알려진 것이라면 굳이 조건문의 형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후건의 명제를 단언해도 충분히 정보적인 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Sweetser(1990:130-131)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조건의 영향권에 넣어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신정보(new information)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 영역 조건문의 전건에 항상 비가정적인 성격의 명제가 표현되어야 한다.

반면 인식 영역 조건문과 화행 영역 조건문의 전건은 그 내용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이미 참으로 수용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발화될 수 있는데, 이는 조건화되는 명제가 참이라고 알고 있거나 참임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신의 인식 추론의 결과나 화행을 조건적인 것으로 제시할 사회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Schwenter(2014:19)에서는 아래와 같이 Fillmore(1990)의 인식 태도와 Sweetser(1990)의 접속 층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냈다. 기호 'O, X'는 접속 영역과 인식 태도의 공기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8] 접속 영역과 인식 태도의 상관관계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
긍정적 인식 태도	X	O	O
중립적 인식 태도	O	O	O
부정적 인식 태도	O	O	X

여기에서도 Sweetser(1990)와 동일하게 내용 영역의 문장은 긍정적 인식 태도, 즉 비가정성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인식 영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인식 태도가 표상될 수 있으며, 화행 영역은 거짓이라고 믿는다는 부정적인 인식 태도를 제외한 다른 인식 태도들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Schwenter(2014)에서도 영어의 조건 접속사 'if'는 세 가지의 인식 태도들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으나 3.2절에서 든 예문들 중 '동생이 공부하면 엄마는 동생이 공부하는 것을 알고 칭찬해 주신다'처럼 내용 영역 조건문임에도 전건에 긍정적 인식 태도가 드러나는

문장이 있다. 그리고 '민희가 전교 일 등이면 승윤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어'처럼 화행 영역 조건문이면서 부정적 인식 태도가 충분히 반영된 문장도 존재하므로 표 8이 조건문에서의 접속 영역과 인식 태도 사이의 대응 관계를 정밀하게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영어 조건문 (51), (52)에 대한 Sweetser(1990)의 분석은 이 두 문장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아래의 문장들에는 다소 들어맞지 않는다.

(52) 그가 점심으로 라자냐를 먹었다고 (하면/한다면), 그는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먹으려 하지 않을 거야.
(53) 그가 나쁜 (주지사면/주지사였으면), 그는 더 나쁜 대통령이 될 거야.

(52)의 전건 부분에 '네가 말한 대로'처럼 'as you say'에 대응하는 표현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52)의 전건이 가지게 되는 해석을 연결어미의 형식을 통해 판별할 수 있다. 가정성에 관하여 중립적이지 않고 가정성이 절에 표상되었음을 명시하는 '-다면'이 전건과 결합할 경우, (52)는 전건이 가정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전건 명제에 대한 화자의 지식이 후건의 참을 도출하는 데 충분조건이 되므로 인식 영역 조건문으로 분류해야 한다. 가정성과 비가정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면'을 사용할 때는 '-다면'이 나타날 때와 동일하게 가정적인 해석을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50)에서 'as you say'를 삭제한 해석과 동일하게 비가정적인 해석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52)의 전건과 후건이 인식 영역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50)를 한국어 조건문으로 바꾼 (52)는 전건 서술어에 결합하는 조건 연결어미의 종류에 따라 전건에 가정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지의 여부만 다를 뿐이며 문장 자체가 속하는 접속의 영역은 인식 영역으로 같다.

(53)에 대해서도 (52)와 같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성을 드러내는 한국어 표지인 '-었으면'을 사용하든, 무표적인 표지인 '-면'을 사용하

든 관계없이 화행 영역 조건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조건문의 전건 명제가 가정성을 표상하는지의 여부는 조건 연결어미의 종류와 발화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조건문이 어떠한 접속 영역에 위치하는가를 보아서는 확정할 수 없다.

결국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으로 구분되는 세 가지 접속 영역의 조건문들은 가정성과 비가정성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조건문의 분류 체계를 수립하는 문제와 연결할 수 있다. 특정한 접속 영역에서만 가정성 또는 비가정성이 표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문장이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전건 명제에 가정성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접속 영역과 가정성 사이의 잘못된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전건 전제의 가정성을 판단하고 전건 전제의 투사 여부를 논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국어 조건문에 대해서도 Sweetser(1990)의 접속 영역 개념을 핵심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아 조건문의 체계를 세운 김수정(2020)의 논의가 있다. 김수정(2020)은 아래와 같은 조건문 분류 체계를 제안한다.

[표 9] 김수정(2020)의 한국어 조건문 분류 체계

접속 영역	유형	-다면	-면
내용 조건	단순 가정	가능	가능
	총칭적	불가능	가능
	시간적	불가능	가능
	공간적 배경	불가능	가능
인식 조건	판단	가능	가능
	반사실적	가능	가능

화행 조건	화행적	가능	가능
	대비	가능	가능
	조응적	가능	가능
	직시적	불가능	가능

김수정(2020)은 한국어의 조건 연결어미 '-면'과 '-다면'이 표상할 수 있는 조건의 접속 영역과 세부 유형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논의이다. '-면'은 가정성과 관련하여 무표적인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조건문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다면'은 가정성이 있는 명제와만 공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포의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 표 9는 김수정·최동주(2018)의 조건문 분류 체계에서 인식 영역만이 반사실적 조건문을 포함한다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는 본고의 지적이 재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 더불어 가정성을 표시하는 '-다면'이 인식 영역 조건문에 속하는 판단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은 인식 영역에 가정성과 비가정성이 표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이지 못한다. 가정성을 표면적으로 보이는 한국어의 언어 형식 중 하나인 '-다면'이 두 개의 인식 영역 조건문에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로는 '-다면'이 쓰인 인식 영역 조건문의 전건에 비가정적인 성격의 명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표 9로 정리된 김수정(2020)의 조건문 분류 체계에서는 모든 접속 영역에서 가정성과 비가정성을 표상할 수 있다는 통찰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본고는 조건문의 유형을 나누고 유형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나의 분류 체계를 수립할 때 Sweetser(1990) 식의 접속 영역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건과 전제의 개념적 유사성을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및 실제적인 조건문들에서 관찰되는 전제 투사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모든 접속 영역은 가정성과 비가정성을 표상할 수 있으며, 어떠한 문장이 특정한 접속 영역에 해당한다

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 문장의 가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가정성은 본고에서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룰 때 투사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었으며, 가정성에 대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지 못하는 접속 영역의 구분은 필연적으로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해 정연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접속 영역을 조건문 분류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상정하여 만들어진 조건문 분류 체계는 다시금 숙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조건문 연구들은 가정적인 조건문과 비가정적인 조건문을 한국어처럼 상세하게 구분하지 않는 영어의 문장들을 위주로 살펴 수립되었다. 그래서 한국어 조건문에서 나타나는 전제 투사의 실제 모습을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전제 투사 조건 및 조건문 분류 체계를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조건문 분류 체계들은 일반적으로 전건의 의미 및 통사적 기능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상정하여 전건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문의 성격을 보이는 데 유용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를 인정하더라도, 조건문과 전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이론적 틀에서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의 특징과 전제 투사 현상을 조건문 분류 체계의 설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태도가 유용할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한국어 조건문에서 관찰되는 전제 투사의 양상을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전제 투사 조건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조건과 전제의 개념적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전제 투사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참고할 만한 조건문 분류 체계가 긴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전제, 전제 투사 문제, 그리고 조건문에 대해 선행 연구들이 논의한 바를 제시하였다. 전제 투사 문제는 복문의 내포절에서 유발된 전제가 전체 문장의 전제로 유지되거나 취소되는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논의이다. 투사라는 언어 현상은 담화의 맥락을 배제하고 명제의 진리치만을 살피는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본고는 담화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의미하는 전제 개념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건성과 가정성의 개념을 정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정성은 어떤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어지거나 실현성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특성이다. 조건성은 가정성보다 포괄적인 의미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두 사건 중 하나의 발생이 다른 사건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조건성과 가정성은 언어 형식에도 반영되어서, 한국어의 부사 ‘만약, 만일, 혹시, 설마’나 조건 연결어미 ‘-다면, -라면, -었으면, -더면, -더라면’이 사용된 전건은 해당 문장에 가정성이 있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본고의 전제 투사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이 실제의 조건문들에서 관찰되는 전제 투사의 양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Karttunen(1973)의 논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Karttunen(1973)은 내용 영역 조건문과 인식 영역 조건문의 예만을 보이면서 명제 사이의 진리조건적 관계가 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 투사 조건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전제 투사 조건은 동일한 접속 영역

에 속하는 조건문들 중 한정된 문장에 대해서만 투사의 환경을 설명할 수 있으며 투사라는 언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Karttunen(1973)의 전제 투사 조건은 자연언어의 모든 조건문에 대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지점을 극복하고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전제 투사 조건을 제시하였다.

(54) 'A-면 B' 형식의 조건문 S가 있고, C는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를 가리킨다고 하자.
가. A가 C를 전제하면, S는 C를 전제한다.
나. B가 C를 전제하면, C가 실현되었다는 화자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C가 가정성이 없는 명제인 경우에만 S는 C를 전제한다.

전제 명제가 기술하는 사건이 '비가정성'을 띠고 있어서 현실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는 화자의 강한 믿음이 존재할 때만 해당 전제의 투사가 허용된다. 반대로 명제의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믿음 또는 실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불확실한 믿음이 전제에 표현되는 경우, 해당 전제는 '가정성'의 의미 특징을 가지게 되어 전제의 투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후건의 전제와 전건의 전제가 투사되는 환경을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후건의 전제 투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제 자체의 가정성을 투사의 주요한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건 전제는 (54가)에서 보듯 항상 투사되는데, 이는 전건의 전제가 조건의 영향권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결과이다. 조건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제는 항상 담화 참여자들에게 구정보이자 화제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전제 자체의 내용이 가정적이든 비가정적이든, 전건의 전제는 조건의 영향권 속에서 비가정성의 특징을 가지게 되어 언제나 전체 문장으로의 투사가 허용된다.

본고는 조건문의 실제적인 예들을 살핌으로써 (54)로 정리된 전제 투사 조건이 모든 접속 영역의 조건문들에서 나타나는 전제 투사의 결과를

잘 예측하고 설명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정성'이라는 의미 특성이 Fillmore(1990)의 '인식 태도'와 van der Sandt(1992)의 결속 이론의 틀 속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 이론적 설명력을 확보하였다.

4장에서는 조건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체계를 제시한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전건의 의미 및 통사적 기능을 중시하였고 Sweetser(1990)의 접속 영역을 조건문 분류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논의들은 전제 투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참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논의들은 조건과 전제의 개념적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가정적인 조건문과 비가정적인 조건문이 형식적으로 세밀하게 구분되지 않는 영어의 조건문들을 위주로 분류 체계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조건 연결어미들을 사용하여 전건 내용의 실현성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태도를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조건문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건문 분류 체계는 언어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뿐더러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전제 투사의 모습을 보다 뚜렷이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담화 참여자들이 모두의 공통 배경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믿어서 청자에게 단언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전제에 주목하여 전제와 관련된 여러 언어 현상 중 전제 투사 문제를 더욱 정연하게 설명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건문에서 관찰되는 전제 투사에 주목하였는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두 사건 사이의 연결 관계를 담화 참여자들이 인지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장이 바로 조건문이기 때문이다.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에서 유발된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투사되는 환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는 조건문의 의미 해석 과정에 수반되는 인간의 언어 능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본고는 전제 투사 문제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는 조건문 분류 체계를 직접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전제 투사 문제 및 전

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조건문 분류 체계의 방향을 제안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조건문의 유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바탕으로 부류를 설정하는 작업은 전제와 관련된 논의뿐만 아니라 조건문 자체의 다른 특성들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본고에서 상세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김수정, 최동주(2018), ‘-면’ 조건문의 유형과 시제, 《언어》 43(2), 한국언어학회, 201-221.

김수정(2020), 접속 영역의 관점에서 본 ‘-다면’ 접속문의 유형과 실현 양상 : ‘-면’ 접속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23.

김지영(2021), 한국어 조건문 반사실성 해석의 과거시제와 내포 그리고 전제 효과 : 행동 및 신경심리학적 실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김진웅(2014), “-더-”와 전제 투사-담화표상이론의 관점에서, 《한민족문화연구》 48, 한민족문화학회, 207-238.

김창익(2003), 역동적 의미론에서 문장 연산자의 전제 투사, 《언어연구》 19(2), 한국현대언어학회, 199-223.

김창익(2007), 전제 투사에 나타나는 국부적 수용은 특별한 현상인가?, 《현대영어영문학》 51(2),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93-116.

문금현(2004), 전제(前提)의 유형, 《한국어 의미학》 14, 한국어의미학회, 223-254.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박승윤(1988), 국어의 조건문에 관하여, 《언어》 13(1), 한국언어학회, 1-14.

박승윤(1992), The Semantics of Conditionals, *Korea Journal* 32(3),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31-43.

박승윤(2003), Conditionals in Korean revisited, 《담화와인지》 10(2), 담화·인지언어학회, 25-52.

박유경(2015), 조건 연결어미 ‘-다면’의 용법. 《한국어 의미학》 50, 한국어의미학회, 45-68.

박정운(2006), 한국어 조건문의 인식태도,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109-132.

성선월(2001), 한국어 조건 표현 어미의 교육에 대한 연구 :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현규(2019), 한국어 '-면' 관련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정석(2020), 조건 구문과 양보 구문의 통사의미론, 《배달말》 67, 배달말학회, 51-91.
유우흠(2022), '다시'와 '또'의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지원(2004), 한국어 조건문의 유형에 따른 의미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신문화사.
이광호(2018), 접속어미 「-면」의 의미기능과 그 상관성, 《언어》 5(2), 한국언어학회, 33-65.
이상태(1988), 국어 접속어미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소영(1994), 독일어의 전제투사 문제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창봉(1996), Conditionals as a Discourse-bound Entity: Pragmatics of Korean conditional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이창봉(2009), Conditionals and the Semantic Feature of the Marker -*myen* in Korean, 《담화와 인지》 16(3), 담화·인지언어학회, 171-193.
이향란(2004), 전제투사의 만족이론 및 결속이론의 문제점, 《현대영어영문학》 48(3),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195-211.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임채훈(2022), 보조사 '도'의 의미작용과 기능의 통합적 설명에 대하여-'전제 유발자', '전제 수용', '연결 짓기'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어문론집》 91, 중앙어문학회, 53-82.

전영철(2002), 한정성 효과: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 《언어와 정보》 6(2), 한국언어정보학회, 83-104.

정우헌(2022), 反事實的 條件文의 解析과 非移行的 因果의 條件文 硏究, 《어문연구》 5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34.

황현동(2020),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dams, Ernest (1975), The Logic of Conditionals, *Inquiry* 8(1-4), 166-197.

Akatsuka, Noriko (1985), Conditionals and the Epistemic Scale, *Language*, 625-639.

Athanasiadou, Angeliki and René Dirven (1997), *On Conditionals Again* (eds.), Vol. 143, John Benjamins Publishing.

Beaver, David (1993), The Kinematics of Presupposition, in Hans Kamp (ed.), *Presupposition*, DYANA-2, Deliverable R2.2.A, Part Ⅱ.

Beaver, David and Geurts, Bart, D. (2013), Presuppositon, in C. Maienborn, K. Heusinger & P. Portner (ed.), *Semantics :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Vol. 3,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2432-2460.

Chierchia, Gennaro (1995), *Dynamics of Mean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mrie, Bernard (1986), Conditionals: A Typology, in Elizabeth Closs Traugott et al. (eds.), *On conditionals*, 77-99,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ncygier, Barbara (1999). *Conditionals and Prediction : Time, Knowledge, and Causation in Conditional Constructions*, Vol. 8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ncygier, B. and E. Sweetser (2000), Constructions with if, since, and be cause: Causality, epistemic stance, and clause order, in E. Couper-Kuhlen and B. Kortmann (eds.), *Cause, condition, concession, contrast: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111-142.
Dixon, Robert W. (2012), *Basic Linguistic Theory Volume 3: Further Grammatical Topics*, Oxford University Press.
Fillmore, C. J. (1990), Epistemic stance and grammatical form in English conditional sentences, in Chicago Linguistic Society 26, 137-162.
Gazdar, Gerald (1979), A Solution to the Projection Problem, *Presupposition*, Brill, 57-89.
Givón (2001), *Syntax: an Introduction Volume II*, John Benjamins.
Grice, Herbert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Speech Acts*, Brill, 41-58.
Haiman (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54(3), Language Society of America, 564-589.
Heim, Irene (1983), On the Projection Problem for Presuppositions, *Formal semantics-the essential readings*, 249-260.
Heim, Irene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nd the Semantics of Attitude Verbs, *Journal of semantics* 9, 183-221.
Horn, Laurence R. (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 121-174.
Huang, Yan (2014),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Iatridou, Sabine (1991), Topics in Conditionals, Cambridge: MIT Ph.D. dissertation.
Jackson, Frank (1987), *Conditionals,* Oxford: Basil Blackwell.
Johnson-Laird, Philip N. and Ruth M. J. Byrne (1986), Conditionals: a Theory of Meaning, Pragmatics, and Inference, *Psychological review* 109(4), 646-678.
Kamp, Hans (1981),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in P. Pornter & B. H. Partee, *Formal semantics-the essential readings*, Blackwell Publishing, 189-222.

Karttunen, Lauri (1973), Presuppositions of Compound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4, 169-193.

Karttunen, Lauri (1974), Presupposition and Linguistic Context, *Theoretical Linguistics I*, 181-194.

Karttunen, Lauri and S. Peters (1975), Conventional Implicature in Montague Grammar, in *BLS 1: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Berkeley, 266-278.

Kaufmann, Stefan (2001), Aspects of the Meaning and Use of Conditionals, Doctoral Dissertation, Standford University.

Keenan, Edward L. (1971), Two kinds of Presupposition in Natural Language, in C. Fillmore & D. Langendoen (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45-54.

Kratzer, Adolf (2012), *Modals and Conditionals: New and revised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Langendoen and Savin (1971), The Projection Problem for Presuppositions, in C. Fillmore and D. Langendoen (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54-60.

Lambrecht, Knud (1996),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Discourse Referents*, Vol. 71,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wis, David (1973),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0(17), 556-567.

Lewis, David (1979), Scorekeeping in a Language Game,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9, 339-359.

Morgan, Jerry L. (1969), On the Treatment of Presupposition in Transformational Grammar, *Proceedings from the Annu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5(1), Chicago Linguistic Society.

Palmer, Frank Robert (2001),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msey, Frank Plumpton (1931), General Propositions and Causality, in Kegan Paul,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and other Logical Essays*, 237-255.

Schlenker, Philippe (2010), Presuppositions and Local Contexts, *Mind* 119(474), Oxford Univerisity Press, 377-291.

Schlenker, Philippe (2011), Presupposition Projection: Two theories of Local Contexts part II.,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5(12), 858-879.

Schwenter, Scott (2014), *Pragmatics of conditional marking: implicature, scalarity, and exclusivity*, Routledge.

Sellars, Wilfrid (1954), Presupposing, *The Philosophical Review* 63(2), Duke University Press, 197-215.

Soames, Scott (1982), How Presuppositions are Inherited: A solution to the Projection Problem, *Linguistic Inquiry* 13, 483-545.

Stalnaker, Robert (1973), Presupposition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4), 447-457.

Stalnaker, Robert (1974), Pragmatic Presuppositions, in M. Munitz & P. Unger (eds.), *Semantics and Philosoph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213.

Stalnaker, Robert (1975), Indicative Conditionals, *Philosophia* 5(3), 269-286.

Stalnaker, Robert (1978), Assertion, in P. Cole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Academic Press, 315-332.

Stalnaker, Robert (2002), Common Ground, *Linguistics and philosophy*

25(5/6), 701-721.

Strawson, Peter F. (1950), On Referring, *Mind* 59(235), 320-344.

Sweetser, Ev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mason, Richmond H. (1973), *Semantics, Pragmatics, Conversation, and Presupposi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van der Sandt, Rob A.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s Anaphora Resolution, *Journal of semantics* 9(4), 333-377.

von Fintel, Kai (2000), What is Presupposition Accommodation?, MIT.

Zeevat, Henk (1992), Presupposition and Accommodation in Update Semantics, *Journal of semantics* 9(4), 379-412.

Abstract

A study on the presupposition projection in Korean conditionals

Moon, Seo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organize a new set of presupposition projection conditions that can explain the problem of presupposition projection in Korean conditionals and argues for a classification scheme for conditionals that actively reflects the features of presupposition.

In order to clearly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ditional sentence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conditionality' and 'hypotheticality'. Hypothetical meaning is not conveyed when there is a speaker's strong belief that the event described by a proposition is true in light of the real world, but non-hypothetical meaning is conveyed when there is a belief that the event is false or an attitude of uncertainty about its truth. The nature of these 'hypotheticality' and 'non-hypotheticality' must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conditionality’, which reveals a causal connection between two events.

Chapter 3 presents presuppositional projection conditions and show that they help us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presuppositional projection observed in conditionals. Any discussion of understanding presupposition projection in conditional sentences must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beliefs that discourse participants have about the propositions, in other words, whether hypotheticality is expressed. When a consequent’s presupposition is subject to a projection problem, the consequent’s hypothetical presupposition is not projected, but the non-hypothetical presupposition is projected. A presupposition triggered by an antecedent is always projected to a full sentence, regardless of whether the presupposition itself is hypothetical or non-hypothetical, because the presupposition of the consequent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condition. Since the proposition being conditioned is recognized as information that the discourse participants already knew, the presupposition of the consequent acquires non-hypotheticality, and then the non-hypothetical presupposition projects.

Chapter 4 points out the problems of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oposed a classification scheme for conditionals. They focus on the function of the antecedent and do not examine the linguistic phenomena related to the presupposition and the presupposition itself, so they cannot provide a neat explanation about the presupposition projection problem. Furthermore, they focus on the conditional sentences of English. English do not make an apparent distinction between hypothetical and non-hypothetical conditionals, so previous discussions excluded the features of languages such as Korean, which use linguistic markers like conditional connectives to express how the

speaker evaluates the realization of the presupposition's content.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classification scheme for conditional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features of presuppositions, which is very conceptually related to conditions.

Chapter 5 summarizes the above discussions and concludes by identifying future research issues.

keywords : presupposition, presupposition projection problem, Korean conditionals, hypotheticality, classification sheme for conditionals, conditionals type.
Student Number : 2021-27440